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구독 후원 상담
02-2004-8212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1월 7일)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메타버스 전법 위한 종단적 큰관심 절실"

조계종 포교원, 11월 23일 포교종책좌담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차산업혁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초연결성'이다.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연결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은 이제 우리 곁으로 훌쩍 가까이 다가왔다. 대표적인 것이 '메타버스(Metaverse)' 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 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 內 성보 등 재현
포교전법 아이템 무궁무진
"미래엔 메타버스 일상화
불교, 사회 안전망 역할을"
불교미디어들 접근 어려움
종단서 기반 조성, 지원을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불교 전법과 포교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메타버스, 불교의 접근과 활용'을 주제로 포교종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불교적 활용 방법과 불교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전법 포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구현 방안'을 통해 △전통사찰·성보·고승의 메타버스 복원 및 재현 △불교 경전 서사(敍事)의 메타버스 구현 △메타버스 속 신행 체험 등을 불교계에 제안했다.

메타버스에서 사찰과 고승 등이 복원·재현되고 있음을 소개한 보일 스님은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사찰에서 주지 스님을 주도로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찰을 창건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불상, 성보 등을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역사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을 현재화 하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일 스님은 메타버스 공간의 '초연결성'을 주목하며, 언제 어디서나 불교 신행과 명상 수행들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2021년 월정사에서는 '세계 청소년 명상 주간' 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명상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지도받게 했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메타버스에서는 국내를 넘어 해외 교포와 현지 외국인까지도 포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아무리 메타버스가 다방면에 적절한 방편이 된다고 해도 '어떻게 기존 신도나 새로운 불자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견인하고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 관심이 종단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현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조교수는 메타버스 사회에서 불교가 사회적·정신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조교수는 "메타버스와 첨단 기술의 발전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겠지만, 사생활 보호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메타버스 내 범죄, 집단 따돌림, 정신적 피로가 생길 것"이라며 "불교는 메타버스에서 사회의 안전망 역할, 정신적 치유를 통한 대중 치유를 목표로 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콘텐츠실장은 메타버스를 불교언론과 미디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폈다. 그는 "불교언론이 기초적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교언론은)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인력과 기술력 확보 등에서 취약하다. 종단에서 정부 지원 사업 등을 개발·유치해 불교미디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사찰 김치, 어르신께 전해요

안성시노인복지관에 전달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11월 2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에서 '같이나눔 사찰음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강사 홍승 스님의 지도로 자원봉사자 13명이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김치를 담갔다. 이날 제작된 김치는 800kg, 300포기 분량으로, 11월 24일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법계도 사과無·문전박대… "가톨릭 본모습 봤다"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 10여명 서울대교구·서소문博 항의방문

종회서 면담 요청공문 송달에도
일반행정직 과장 직원이 응대해
서소문博 관장 신부의 사과없이
"작가 동의없어 못해" 변명일관

"불교계가 사찰에 찾아온 가톨릭 신부와 수녀님들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이웃종교 성직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가톨릭 서울대교구청 청사 1층 안내데스크. 조계종 중앙종회 대표단 스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님들은 가톨릭 서소문역사박물관에 전시됐던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왜곡한 도상을 항의하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11월 18일 명동성당에 위치한 가톨릭 서울대교구를 찾았다.

대표단은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심우·제정·진각·학암 스님 등 중앙종회 대표단과 총무원 사회국장 현우·해인사 사회국장 일휴·대장경보존국장 일한 스님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대표단과의 원활한 만남을 위해 중앙종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보냈으나 교구 측은 신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과장급 직원을 내세워 스님들을 돌려보냈다. 과장급 직원은 "조계종에 보낸 회신 공문 마지막 부분에 (방문 거절)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가톨릭 서울대교구는 회신공문에서 "서소문역사박물관의 문제이므로 향후 본 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물관 측과 협의해달라"고만 게재했다.

이에 대표단은 "해당 내용으로 방문하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은 공문을 보낸 단체의 입장"이라며 "어떻게 이 내용을 갖고 만남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아예 박물관과의 문제이니 면담 자체를 거절한다고 보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선광 스님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온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의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갖출 절차는 모두 갖췄다고 본다"며 "한국 가톨릭 교회에 유감을 표한다. 향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톨릭쪽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11월 18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서소문역사박물관을 찾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호사를 대동한 박물관 측은 초상권과 녹취를 운운하고 형사 문제를 언급해 대화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선광 스님(오른쪽)과 심우 스님이 11월 18일 항의방문 일정을 마치고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방문에 앞서 대표단은 갈등의 시발점인 서소문역사박물관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소문역사박물관 측은 "작가가 인정하지 않아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도리어 박물관 측 법률대리인으로 배석한 변호사는 초상권과 녹취를 운운하고 형사 문제를 언급해 종교인 간의 대화는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변호사의 발언에 대표단 스님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광 스님은 "법계도 왜곡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고, 양 종교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며 "시작부터 초상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힐난했다.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원종현 신부는 "(변호사를 대동한 것은) 이런 환경이 익숙치 않아서"라고 해명하며 "불교계의 문제 제기 이후 법계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11월 14일 전시된 작품을 내리고 다시 제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신부는 "법계도는 2019년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인간문화재 장인들이 작품을 제작·기증해 전시하게 된 것이다. 스님들을 모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기증한 작가가 인정하지 않은 무단도용을 박물관이 사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조계종 대표단과 서소문역사박물관 측의 대화는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마무리됐다.

방문 일정을 마친 조계종 대표단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일들을 목도했다"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심우 스님은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임에도 가톨릭이 역사를 왜곡하며 갈등을 유발함에도 한마디 사과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웃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현재 한국 가톨릭의 본모습이다. 한번 더 불교가 어떻게 역사 왜곡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오늘 가톨릭 서울대교구 명당성당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목도했다"며 "앞으로 불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톨릭이 전통을 왜곡하고 불교를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다.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서울시, 마을센터 일방 종료…“조계사에 책임 전가?”

조계사 스님, 마을센터 직원들 삼보일배 오체투지

서울시 1년 만에 종료 일방 통보
수탁 동안 특정감사로 운영 방해
시의회 조례폐지 상정 통과 예정
30명의 직원들 일자리상실 우려
“폐지안 철회와 고용 안정”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아침, 조계사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섰다. 이들은 죽비에 맞춰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를 하는 삼보일배로 서울시청을 향했다. 종각을 지나 을지로에 이르렀을 때엔 이들 얼굴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스님과 재가자들이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서울시청을 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9월 23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조계사(주지 지현)에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의 일방 종료를 구두 통보해 왔다. 조계사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또 현재 서울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9월 30일 공문을 통해 마을센터 운영 종료를 공식화했다.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11월 운영 난항 중이던 마을센터를 수탁한 후, 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생과 호혜의 서울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다. 심지어 조계사가 마을센터를 수탁해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는 운영권에 대해서도 침해하는 행정을 해왔다. 서울시는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를 수탁한 직후, 장기간 특정감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월별 사업비 통제, 세부 사업에 대한 실질적 간섭 및 통제 등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운영 종료 통보였다.



조계사와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11월 22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규탄하며 조계사 일주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조계사가 “수탁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이미 사업 폐지 계획을 세워 놓고 조계사에게 뒤처리를 떠넘긴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이유도 여기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고, 오는 12월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조계사와 마을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돼 현재 4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11월 22일 진행된 조계사 스님들과 마을센터 직원들의 삼보일배 오체투지는 부당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철회를 위해 진행됐다. 오체투지에는 조계사 신도국장 혜원 스님, 사회국장 정수 스님, 교육부국장 무진 스님, 이세용 종무실장, 원준혁 마을센터 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여했다. 1시간 30분을 삼보일배로 이동한 스님과 재가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조례 폐지안 철회를 비롯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안정을 주장했다.

조계사, 마을센터 오체투지 삼보일배 동참자들은 “사업 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고,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면 재편할 일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가 결정됐다”면서 “일방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계사에 마을센터 직원 30명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을 폐지하려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이 수탁법인인 조계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불교계와 조계사를 기만한 데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시는 통상 3년인 수탁 기간을 1년 1개월로 제한한 것이 관련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암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서울마을센터 수탁 공고문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입찰시 3년 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요구했다”며 “조계사가 수탁 이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까지 단 한 번도 계약 종료나 사업 폐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 애초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새로운 수탁법인을 공모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일련의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서울시가 조례 폐지안 철회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3차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세용 종무실장은 “불교계의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담은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하겠다”면서 “가톨릭 성지화로 스님들의 우려와 분노가 높다. 서울시의 종교편향 정책과 일방통행적 행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분별 끊어내야 무애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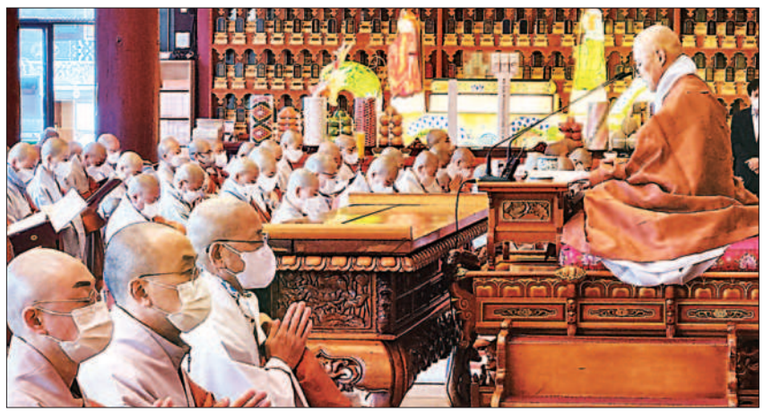
첫 동안거 포살법회 소찬법문
비구 · 비구니 280명 참여
송계 따라 스스로 돌아봐

“모든 대중들이여, 이제 보름마다 포살을 지어 보살계를 말하노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잘 듣고서 죄가 있는 이는 드러내어 참회하고 죄 없는 이는 잠자코 있으라.” 불기2566년 동안거 정진 보름을 맞은 조계사 대웅전. 장궤합장한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은 법상에 좌정한 법사의 송계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봤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11월 2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송계법사로 ‘불기2566년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 첫 송계법사로 나섰다.

포살법회 동참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송계에 따라 〈범망경보살계포살본〉를 독송하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계를 마친 진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소참법문을 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통해 분별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시비고락이며, 이를 통해 분별심이 생긴다. 이는 내가 만든 분별법이며 업식”이라면서 “이것을 없애야 성불할 수 있다”고 설했다.



11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2566년 동안거 1차 포살법회에서 송계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이 송계를 하고 있다.

이어 “업식을 끊어내기 위해 수행이 있다. 가장 수승한 수행은 참선이고 간화선”이라며 “간화선 수행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방하착(放下著)하면 중생심을 벗어나 이고득락할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도피안(到彼岸)”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분별을 넘어서면 무애하고 모든 행동이 계에 어긋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분별을 넘어 무애하면 저절로 보시하고, 수행하며 육바라밀이 이뤄진다. 그리하면 지켜야 할 계도 없고, 지킬 계도 없어진다. 분별을 끊어내면 우리도 무애도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살법회는 직할교구 소속 비구 스님 110명, 비구니 스님 170명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7기 장학위원 위촉…위원장 종호 스님

진우 스님, 11월 21일 위촉장 전달
종호 스님, 혜수 스님 등 12명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7기 장학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제7기 장학위원은 종호 스님(동국대 부총장)을 비롯해 호산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선조 스님(보문사 주지), 혜안 스님(선본사 주지), 태원 스님(도선사 주지),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정덕 스님(동국대 교수),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 법해 스님(진관사 주지), 지우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 당연직) 등 12명이다. 7기 장학위원장은 6기에 이어 종호 스님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1일 제7기 장학위원 위촉식을 열고 1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이후 진우 스님은 “장학위원회는 종단 학인 스님이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며 인재양성의 요람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인 스님들이 수행과 학업에 매진해 종단의 큰 인재가 되도록 많은 장학혜택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법원, ‘선암사 소송’ 조계종 상고 기각

선암사 ‘태고종 소유’ 사실상 확정

소유권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 중인 순천 선암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월 1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법원은 선암사를 태고종 소유로 확정한 셈이 됐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前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前 주지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태고종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 22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군법당 지역신행사찰로…軍신행문화 정착”

인터뷰 | 조계종 제6대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기도 정진 정례화 및 활성화
사암련 연계, 실질 지원 연결
전략 포교 위한 재정 마련도
군승 인식 개선 후보생 육성
“빠른 주지 경험…장점 홍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6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으로 능원 스님<오른쪽 사진>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대웅전에서 6대 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 및 제54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11월 22일 호국원광사에서 만난 능원 스님은 담담한 어조로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군승 지원 감소 속에 파송 문제 해결과 홍제사 불사 등의 산적한 과제 속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다.

능원 스님은 “사찰 유지보수를 비롯해 군승법사들의 월급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는 군종교구는 다른 교구로 따지면 수말사에 해당되는 주요군법당도 있어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구조”라며 “4년간 재정적 여력을 갖춘 자립구조 속에서 각종 불사나 전략포교의 밑바탕을 놓고 싶다”고 전했다.

군종특별교구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에 이어 계룡대 영외법당인 홍제사 불사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이 백만원력결집불사 사업으로 홍제사 불사를 포함시키고 지원하지만, 군종교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크다. 홍제사 불사 외에도 이후 노후된 주요군법당과 군 재편 및 이동에 따른 새로운 불사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승법사 출신인 능원 스님은 2010년 남해 보리암 주지로 임명되며 보리암에서 관음성지 기도를 활성화 시킨 경험이 있다. 특히 보리암에서는 법회 정례화와 자시(子時)기도 운영 등 신행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능원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중은 목탁만 치면 옷도 생기고 쌀도 생긴다’ 고 하셨는데, 그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본분에 충실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셨다”며 “저도 열심히 기도정진해보니 여러 가지 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당시에 신도들을 위한 상시 차담을 하고 신행상담 등을 진행했다. 자연스럽게 신도들이 늘고 이러한 바탕 하에 마련된 재정으로 불사 및 지역장학금과 자비나눔 등을 진행했다.

스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 군법당의 경우에는 신도조직화와 기도활성화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승법사들은 신심과 원력을 가진 이들이고 한번 뭉쳐지면 큰 역량을 발휘하기에 이들이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군승 수급 과제에 대해 스님은 “군승 파송은 출가자 감소라는 큰 원인이 있기에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올해 파송 미달 등 여러 사태와 언론의 보도 속에 지원 독려로 18명의 예비자원을 충원한 상태다.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군승에 대한 인식을 전환, 지원을 늘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도 말사 주지를 맡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종단에서도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출가를 앞둔 스님들도 군승의 경우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주지직을 빠르게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군승 수급책 중 군종사관 후보생의 경우 타 사관후보생이 받는 품위 유지비와 같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승단이 예비승려를 배출한다는 인식으로 후보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스님은 ‘지역포교와 함께 하는 군포교’ 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스님은 “군포교의 경우 군법당 외에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구본사와 군법당간 자매결연 외에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암연합회와의 결연, 군포교에 원력있는 스님들의 발굴 등을 통해 일선 군포교 현장 활성화를 이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에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원명 스님은 前 인권위원 퇴휴 스님 후임으로 지난 9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근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는 11월 22일 “원명 스님은 환경보호와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이사로서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원명 스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위원,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新이사에 종호 스님, 최진식 대표 선임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최진식 심팩 대표가 신임 감사로는 현 감사 원명 스님과 정수사 주지 도림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1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6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와 감사를 선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회의에서 내년 2월 28일 임기 만료되는 이사 성우 스님 후임으로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조계사 선림원 지도법사 원충 스님을, 내년 1월 4일과 4월 24일 임기 만료되는 감사 원명 스님과 일화 스님의 후임에는 원명·우봉 스님, 도림·해량 스님을 각각 복수 추천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24일 임기 만료되는 이은기 이사 후임으로 최진식 심팩 대표와 양형진 은석초 교장을 복수 추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성우 스님 후임에 종호 스님을, 이은기 이사 후임에는 최진식 심팩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또한, 감사 원명 스님의 재임과 일화 스님 후임 감사로 도림 스님을 선임할 것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1월 22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4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346차 회의서 만장일치
감사엔 원명·도림 스님 선임
총추위 논의… 내년 1월 선출
시스템반도체학과 신설 확정도

또한 이날 이사회는 제20대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사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키로 했다. 총추위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추천 4명을 비롯해 교원 대표 12명, 이사장 추천 사회인사 대표 3명, 직원 대표 4명, 동창회 대표 2명,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총추위는 12월 13~14일 지원서를 접수 받고 12월 27, 28일 경 마지막 전체회의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초 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20대 총장이 선출된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시대 변화에 선도하기 위해 서울캠퍼스에 반도체 특성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정원 63명)를 내년부터 이과대 물리학과(정원 23명)와 AI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정원 40명)으로 개편하게 된다.

학교 측은 “반도체 특성학과 신설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평화기원 구호품 전달

11월 19일, 3천만원 상당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미얀마 내전으로 도피 생활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 법회 및 제3차 미얀마 구호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은 3000만원 상당으로 침낭 500개, 방한복 400벌, 감기약 5000통, 햄 2000캔, 라면 400박스 등으로 구성됐다.

비구니회는 지난해부터 미얀마인들을 위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왔다. 2021년 8월 28일, 2800만 원 상당의 코로나 의료구호품을 전달한데 이어 2022년 3월 1일에는 독립을 도모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침낭과 비상식량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 소재 비구니 사찰을 중심으로 미얀마 민주화평화를 기원하는 릴레이 기도를 봉행해오고 있다.

이날 전달된 구호품들은 재한 미얀마 대학생연합회와 재한 미얀마 봄 혁명 지지자 단체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9일 전국비구니회관 1층 강당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 법회 및 제3차 미얀마 구호품 전달식’ 을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불교국가 미얀마가 다시 민주화를 이루고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미얀마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재한미얀마 봄혁명 지지자 회원들과 재한 미얀마 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비구니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발원문을 낭독을 통해 미얀마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재한미얀마인들과 함께하는 송년법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기후환경위원 워크숍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11월 21~22일 ‘마음청정 지구청정’ 을 주제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기후환경위원 워크숍’ <아래 사진> 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0여개 종단, 40여 명의 불교기후환경위원들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이 ‘전환의 시대, 환경위기와 불교의 세계관’ 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과, 대전환을 위한 실천과 성숙한 행복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회향식에서는 실천선언문 낭독과 재생과 치유, 정화의 상징인 버드나무를 심으며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보살로서의 의지를 되새겼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대재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대재를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겸 회장 월인 대종사와 회원 50여종단 종정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영남범음범패 통도사 소리보유자 어장 정산당 청봉 대종사님과 그의 문화 달오스님, 법경스님 희유불교무용원장과 경기 범음범패 송강소리어장 도연 대종사 외 7분의 어산스님들이 시련, 극락무, 대령, 관욕, 관욕바라, 화이재진언바라, 신중작접, 관음무, 천수경, 천수바라(경기,영남), 도량게나비춤, 추도사, 지장청, 오공양바라, 화청, 살풀이 신중퇴공, 관음시식, 살풀이, 소대, 회향 식으로 진행하며 영남과 경기의 범음법패소리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위 영가님들의 고통을 여의케하고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위령대재를 경기도 안성 영평사에서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일시 : 불기2566(2022)년 12월 16일(음력11월23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안성 영평사 특설무대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길79-42) 영평사전화 : 031-676-3690
회장(이사장) 월인 대종사 : 010-3590-4848, 서병열 사무총장 : 010-6253-4936

정각 대종사, 삼중 대종사, 의천 대종사, 혜우 대종사, 호암 대종사
월인 대종사, 정산 대종사, 정림 대종사, 도우 대종사, 월성 대종사, 정일 대종사, 지엄 대종사, 영월 대종사
법혜 대종사, 법조 대종사, 도연 대종사, 법흥 대종사, 월단 명사, 보안 현덕, 혜승 대종사, 옥당 명사
일응 대종사, 무각 대종사, 지환 대종사, 혜원대종사, 법휴 대종사, 도오 대종사, 명암 대종사, 이붕 대법사 외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774-1487

지역사찰도 나눔정신 발현, '행복바라미' 동참

직할교구신도회, 11월 20일 호압사서 행복바라미 축전

호압사 국수나눔행사와 연계
전통문화공연, 나눔 함께 해
현민 스님 "봉사자들에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신도회장 최상원)가 11월 20일 서울 호압사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 직할교구 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올해 영광, 구미 등 불교초전법륜지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에서 '2022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지역문화제는 서울 권역에서 마련된 행사로 지역 불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호압사에서 십수년간 진행 중인 국수나눔 행사와 연계해 펼쳐져 일반대중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을 비롯해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 성불사 경보 스님, 공덕암 일광 스님 등 지역사찰 스님들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 이금석 직할교구 명예회장, 양인효 연화사 신도회장, 이동복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등 사찰 신도회에서도 대거 참여했다.

이날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과 경기지역 행복바라미 기부문화 캠페인으로 개회사, 축사, 모금퍼포먼스, 전통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상원 신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전통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행복바라미 대축전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올해 지역문화축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고립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희망의 한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행복바라미처럼 호압사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바라미 문화축제가 우리 모두가 치유와 위로를 받는 뜻깊은 의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압사 주지 현민 스님은 "호압사의 국수보시를 위해 아침부터 고생한 신도들과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일간 노력한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누군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법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불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각계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주요참석 내빈들의 모금 퍼포먼스와 전통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1회차부터 행정안전부 승인 하에 모금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직할교구 지역문화제에 참가한 내빈들이 모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4050 사찰로 이끄는 신도회로"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



직할교구신도회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가 열린 호압사는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이 호압사 신도회장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일선사찰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행사가 많다"며 "신도들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발심할 때 일이 이뤄지는데, 신도들의 응집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할교구 지역문화제는 호압사가 10여년간 진행해온 국수나눔행사와 연계돼 눈길을 끌었다.

최 신도회장은 "직할교구가 자선골프대회, 일일 찻집 및 바자회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나눔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주력해왔다. 여기에 리오프닝 시기를 맞아 직할교구 내 사찰들과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신도회장은 "4050세대가 불교계 중심으로 자리잡고 수행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들을 사찰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불자연예인 원력 모아…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

11월 22일 조계사서 출범,
6개 분과 177명 이름 올려
전법단 대표 배우 임혁 씨
자광 스님, 범해 스님 등
불교계 격려·응원 이어져



조계종 연예인전법단 출범식에서 참석한 대중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불자연예인들의 구심체인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탄탄, 서울 적조사 주지)이 11월 22일 조계사에서 출범했다. 이날 모인 불자연예인을 비롯한 100여 대중들은 불교 대중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원력을 세운 불자연예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출범식에는 원로의원 자광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연예인전법단 대표를 맡은 배우 임혁 씨는 "연말연시 수많은 시상식에서 이웃종교인들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부처님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소극적 자세일 수 밖에 없었다"며 "자리이타 정신으로 과감하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웃고 울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자"고 말했다.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이들에게 "다른 종교 가르침과 달리 불교는 우리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얘기 한다. 그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한다"며 "즐겁고 기쁠 때 외에도 힘들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활동할 수 있는 불자연예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법단 창설을 이끈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연예인전법단은 불교 홍법포교와 불교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처님 자비정신을 구현, 세상을 복되게 하자"고 당부했다.

초대 단장을 맡은 탄탄 스님은 "많은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둘이서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처럼 연예인전법단이 비록 여러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전법단은 방송, 연기, 연극 등 6개 분과 177명으로 구성됐으며, 연예인전법단을 후원하기 위해 김상훈 前 봉은사 신도회장을 대표로 60명의 재가자로 구성된 전법후원단도 구성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 KCC글라스 손잡고 집수리봉사

11월 21일, 재단 임원실에서 MOU친
환경 바닥재 지원 · 가정용 가구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KCC글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KCC글라스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속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정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1월 21일 서울 전법회관 6층 재단 임원실에서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사업' 후원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집수리봉사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집수리봉사팀 10여 명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KCC글라스는 2020년 5월, '따뜻한 공간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집수리봉사에 필요한 친환경 배닥재를 매월 5롤씩 1년간 후원해왔다. 코로나19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2023년에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KCC글라스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집수리봉사에서 친환경 바닥재 지원과 더불어 가정용 가구 및 사회공헌 전반의 후원을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과 MOU 체결

불교대학 · 불교문화硏과 협약… 불교 분야 학술교류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장, 라빈드라 쿠마르 싱 GBU 총장 및 GBU 비슈와스 트리파티 기획부총장이 협약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이 불교학 교류에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8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가 인도 가우담붓다대학(Gautam Buddha University, 이하 GBU)을 방문해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문화연구원과 GBU가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과 연구 논문 교환 △프로젝트, 인턴십, 박사학위, 불교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고급 연구 등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교류를 다양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은 "이번 합의가 두 불교학 기관 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도, 한국, 대승불교 분야에서 일하는 교수진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해인사, 경성 대율사 전등율맥 전수법회

문광 · 법진 · 일휴 · 수미 · 법진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첩 · 죽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대율사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다. 11월 23일 보경당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혜안 문광 · 덕안 일휴 · 등각 수미 · 명철 법진 · 덕우 법진 스님 등이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대율사로부터 전등율맥을 전수받았다.

조계종 전계사 무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성도 후 승가의 형성은 계율에 의해 기본이 성립되게 됐다. 우바리 존자의 계율 암송으로 율장이 갖추어지고 중국 도선 율사에 의해 사분율 중심의 계단과 전계가 이루어졌다"며 "면면히 이어온 율종은 1980년 법난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을 자운 성우 대율사께서 설립하시고 율맥을 전수하여 무봉 성우 스님을 이어 지엄 경성 스님께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지엄 경성 스님께 전계를 받게 된 스님들께 감축 드리고 한국불교의 계단을 정립해 오신 자운 성우 대율사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더욱 여법 여율한 계율이 종단에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청정한 계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계제자를 대표해 문광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연과 각오를 굳게 새겨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계행을 세상에 펼치고, 세상을 청정하게 맑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스님은 5명의 전계제자들에게 전계첩과 죽비, 발우를 전달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바다에는 온갖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나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미량의 염분 때문이다"며 "혼돈과 전쟁과 분열의 사바세계 안에서 3.5%의 염도 역할을 바로 청정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출가 수행자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총림 율주 지엄 경성 스님과 전계제자스님이 법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불교활동가에 이종만 대표 등 5인

설법연구원, 11월 30일 지원
우연 스님 · 조정숙 국장 등

찬불가 포교를 이끌어온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 등 5명이 올해의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불교의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제19회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이주민 지원 활동과 찬불가를 통한 문화 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온 5명의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 씨는 수십장의 찬불가와 찬불동요를 발표하고 산사음악회를 기획해왔다. 25년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불가를 통한 문화 포교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계사 부설 이주민쉼터 활동가 우연 스님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2010년 한국에와 수행생활을 하며 화엄사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에 입학한 2017년부터 여러 봉사를 이어오며 이주민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센터 운영자 진우 스님 또한 14년간 센터를 통해 국내 캄보디아 불자들을 위한 법회와 법률상담, 이주민쉼터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국민이 불심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자인 즈엉바오칸 씨도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19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올 한해 가장 열심히 생명나눔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를 시상하는 제3회 생명나눔대상 시상식과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생명나눔대상 수상자들과 이사장 일면 스님의 기념촬영 하는 모습.

노래와 춤으로 생명나눔 가치 나누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⑪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 유일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1월 19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법륜 스님, 정현숙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추호성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전보현자 불암사 신도회장, 생명나눔 회원과 지역주민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부터 매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하고 병마에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2019년, 10년을 기념하며 자선음악회 형태로 확대해 올해 3회를 맞았다.

이날 자선음악회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그 막이 열렸다. 생명나눔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보호자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를 빌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생명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생명나눔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제3회 생명나눔 대상은 윤근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에게 돌아갔다. 윤근향 이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 치료비 문제로 힘든 환자들을 위해 나눔활동을 몸소 실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 홍보상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김흥국 씨가, 생명상은 3900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한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눔상은 앱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지원해온 이현진 리매치 앱 대표가 수상했다.

본격적인 음악회 행사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이 한국무용 춤사위로 그 시작을 알렸다.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가수 주권기, 김소유, 뮤지컬배우 최혁주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별출연으로 가수 김흥국의 흥이 넘치는 무대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마하무용단, 주권기가 함께 하는 수화 공연도 펼쳐져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생명나눔 측은 동참자들이 자선음악회를 통해 함께 즐기며 잠시나마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길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월 19일, 건국대 새천년관서 윤근향 이사, 생명나눔대상 수상 마하무용단, 주권기, 김소유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에 관객 환호 중증 질환 환자에 지원금 전달



제13회 생명나눔자선음악회에서 마하무용단이 한국 무용 공연을 하고 있다.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은 "자선음악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치병, 이식대기자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을 위한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마련된 귀한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하며 나누는 기쁨으로 향기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음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청량제"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병원의 환우를 위로하던 한 다솜 음악회로부터 시작해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로 확대 발전한 행사가 벌써 열세번 째가 됐다"며 13년간의 자비나눔을 회상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분들이 함께 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함께 나누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이날 자선음악회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은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과 장기기증 등 이식대기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 속에서도 2022년 한 해동안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전국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백혈병 환자를 살리기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병마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원했다.

생명나눔을 실천한 사람들

2022 생명나눔 대상에 윤근향

홍보상에 가수 김흥국 씨 수상

생명나눔본부, 11월 19일 시상
생명상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나눔상엔 '리매치' 대표 이현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올 한 해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생명나눔 대상에 윤근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가 선정됐다. 홍보상은 생명나눔 홍보대사 가수 김흥국이 차지했다.

생명나눔은 2019년, 생명나눔 활동을 널리 알려 더 밝고 깨끗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고자 생명나눔대상을 제정한 바 있다. 생명나눔대상은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3개 분야에 걸쳐 수상하며 이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생명나눔대상을 수여한다. 상금은 대상 500만 원이며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은 각각 100만 원이다.

생명나눔대상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이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 장기기증 관련 활동을 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펼친 사례를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대상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윤근향**



윤근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 치료비 문제로 힘든 환자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몸소 실천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을 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3회 생명나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보상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김흥국**



가수 김흥국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초대 홍보대사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종단과 불자들, 시민들에게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홍보를 해왔다.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커 홍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생명상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2017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받기 어려운 시기에도 김병석 장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부스 장소 협조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 안내 등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재까지 총 3900여 명의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는데 큰 기여를 해 생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나눔상 '리매치' 앱 대표 **이현진**



'리매치' 앱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했던 가수들의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앱으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됐을 때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 받은 가수 이름으로 후원하는 앱이다. 이 앱을 개발한 이현진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앱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꾸준하게 법인에 기부해왔다. 이에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이 커 나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전용계좌

정기 후원·편리한 CMS 신청 및 문의 ☏02-734-8059
후원 계좌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작은 정성 ARS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불교, 추운 겨울 자비나눔 이어져

부불대 · 화엄승가회 자비의쌀 나눔
광명사, 김장 및 라면 등 자비 나눔
포교사단 부산, 연탄 · 난방유 지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백미와 김장나눔, 난방유,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는 11월 18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추진하는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됐다. 자비의 쌀은 총 6000kg(1800만 원 상당)이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졸업생 및 화엄승가회 소속 사찰 불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마련했다.

자비의 쌀은 부산 남구 관내 8개소 사회복지관 단체에 전달됐다.

학장 범혜 스님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 소외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하는 백미가 배고프고 추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운겨울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진행한 쌀나눔 사진.

△자비실천도량 부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11월 19일 경내에서 제11회 산사음악회 및 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과 법성 스님(태고사 주지), 장제원 사상구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 구청장,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지역위원장, 윤태한 · 김창석 부산시의원, 김향남 · 김종선 · 김윤경 구의원, 이상규 모라1동장, 이정기 모라동 자치위원장 등 내빈과 지역주민이 동참했부산 사찰과 불자들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백미와 김장나눔, 난방유,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다.

행사는 1부 색소폰 연주 공연 및 식사로 시작했으며, 2부는 개회선언, 자비물품 나눔 및 장학금 전달식, 봉사상 수여, 3부 행사는 주민 어울림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자비물품나눔은 '노숙자와 이웃이 함께하는 정(情) 나누기'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김장김치 10kg 362박스와 라면 402박스를 사상구 12개 동사무소와 사상구 장애인협회, 지역 50가구 등에 전달했다.

봉사상은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 수상했으며 사상구 구청장상은 배화숙, 국회의원상은 최영순 · 정경옥, 사상구의회의장상은 김둘이 · 최숙자, 모라1동 동장상은 이송이 · 임계남이 수상했다. 이어 장학금은 박채빈 학생(모라중 3) 외 11명에게 각 20만 원 총 240만 원을 전달했다.

향공 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민잔치를 개최했었는데 모두들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다시 한 번 주민분들을 위한 어울림한마당을 열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정각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정각원이 지난 11월 1일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출범했다. (사)부산정각원은 1995년부터 나눔 및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2015년 정각원으로 명명하고 만발공양 및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9월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으며 11월 1일 승인됐다. 이번 행사는 (사)부산정각원 공동주최했으며, 사단법인 승인 후 첫 행사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는 11월 20일 지하 1층 대중공양실에서 '금정구 이웃(다문화,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장김치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광명사는 전달식에서 김장김치 7kg 180박스(배추 1000포기)와 백미 20kg 10포대, 라면 180박스를 부산 금정구 관내 다문화가정과 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광명사 자비나눔 행사에 동참해주신 금정구연합회 회장 고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내빈들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김장김치는 모두의 정성을 모았다. 김치와 성품을 받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은 11월 19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 일대에서 '2022년도 자비의 연탄 · 동계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아름누리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송재린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과 포교사,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철로변 마을 15세대 각 가정에 연탄 230장과 난방유를 지원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상, 우수상 이강옥 교수

11월 19일 홍법사서 시상식
장려상 명오 스님 · 임시연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가 11월 19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3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술상 우수상은 논문 'MTD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과 그 활용 방안'을 발표한 이강옥 교수가 수상했다. 이강옥 교수는 구운몽과 꿈 경험을 활용하는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Meditation Theraphy Utilizing Kuwumong and Dream Experience: MTD)을 구안했으며 논문을 통해 손쉬운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강옥 교수(가운데), 장려상을 받은 명오 스님(왼쪽), 임시연 상담가.(오른쪽).

이강옥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및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이다. 예일대학교 비교문학과, 뉴욕주립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학과의 방문교수로 연구했으며,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한국고전문학회, 한국문학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계학술상(2020), 지훈국학상(2015), 천마학술상(2008), 성산학술상(1999)을 수상했고 교육부 우수학자(2009)로 선정됐다.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운몽과 꿈 경험을 활용하는 우울증 수행치료 프로그램〉과 〈죽음서사를 활용하는 죽음명상 프로그램〉을 구안했으며 일반문학치료최고전문가 자격증(2013)과 문학심리분석상담전문가 자격증(2019)을 취득했다.

장려상은 명오 스님과 임시연 상담가가 수상했다. 명오 스님은 논문 '사경(寫經)과 심신치유에 관한 고찰'을 통해 사경이 가진 치유효과를 설명했으며, 임시연 상담가는 논문 '중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만다라 명상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로 수상했다.

안양규 학회장은 "학술상을 제정한 목적은 불교상담의 영향과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불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며 "해가 거듭될수록 훌륭한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시상식을 위해 도움을 주신 심산 스님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금정불교대 총동문회, 구법 삼보일배

11월 19일, 범어사 경내 일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서종현, 이하 총동문회)가 11월 19일 경내 일대에서 제5차 구법 삼보일배를 개최했다.

총동문회는 매년 수행을 독려하고 화합과 발심의 장으로 삼보일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삼보일배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렸으며, 범어사 총무국장 범종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서종현 회장 등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삼보일배 정진은 범어사 입구에서 입재식을 진행하고 어산교, 일주문을 지나 설법전, 종루, 대웅전 앞까지 이어졌으며 총무국장 범종 스님의 법문 후 회향했다.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입재식에서 "무릎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혜는 금정산보다 높아지고 공덕은 대지보다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서종현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열리지 못한 수행의 장이다. 동문들의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삼보일배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모두 건강하게 회향하길 바라며 오늘 삼보일배 수행을 통해 신심은 더욱 깊어지며 업장은 사라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 10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발표

진오 · 법광 스님 · 김호귀 선정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11월 18일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상 부문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 HK 교수, 봉사실천 부문 진오 스님(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포교원력 부문 법광 스님(경남파라미타협회 지도법사)이다.


진오 스님


법광 스님


김호귀 교수

김호귀 교수는 역대 조사의 선어록과 선문답 연구와 번역을 통해 불교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진오 스님은 2000년부터 구미시의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여성인권보호 사업을 시작했다.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스님들을 초청해 자국민 불교활동, 민속축제, 통역지원 병원동행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법광 스님은 군포교법사 및 경남 파라미타협회의 운영이사, 지도법사로 13년 동안 활동해 왔으며 청소년 충효사상 및 생명존중사상 고취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13회 울산 차 문화한마당 개최

특별전 '조선 찻사발의 참 얼굴'
울산 차단체 동참, 세미나도

BBS울산불교방송(이진용 사장)은 제13회 울산차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11월 23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울산차문화한마당은 석정 다례원의 식전행사인 헌공다례시연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감사패수여, 축하공연, 학술세미나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통도요 김진량 작가의 특별전시회 '조선 찻사발의 참 얼굴'이 열렸으며 울산 지역 차 단체들이 동참해 함께 차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울산 차문화 계승 · 발전의 공로가 큰 손순희 울산광역시차인연합회장, 차선옥 송정 차문화교육원장, 안은순 예다원 오성다도 회장 등 3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사장은 "울산문화한마당은 울산 차문화의 멋을 알리는 축제이자 오랜 역사의 다도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고 지역 차인들의 화합과 차문화 공유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하신 분들 모두 천천히 차의 향과 맛, 멋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물이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울산의 차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울산의 차 관련 산업들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오늘 소중한 행사를 통하여 다운차를 재현하기 위해 주산지 재배법을 찾아 울산시민의 차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BBS 불교합창단과 무용단, 폴리포니 기타듀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2부 행사인 학술세미나에서는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이 '신라인의 풍류정신과 한국차문화의 원형', 강석근 국제언어문학회장이 '매월당 김시습과 울산 · 경주권의 차문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산옹 스님이 총평을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나눔

연탄 및 난방유 지원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통영시 정량동 일대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난방용품 나누기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통영불교거사림회를 비롯한 각 사찰 신도회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겨울 난방지원용품은 연탄 1200장(108만 원)과 난방유 1600리터(280만 원)이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마련했다.

회장 종묵 스님은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매년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연탄과 난방유를 나눠드리고 있다"며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해드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수정사 개원법회 봉행

부산 수정사(주지 수혜)가 11월 22일 경내 법당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수혜 스님은 개원 법회를 통해 도심 속에 불자들의 쉼터가 되고 도심포교도량으로 성장 할 것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청암 스님(법음종 종정), 법진 스님(수정사 회주), 주지 수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수혜 스님은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회주 법진 스님께 감사인사를 올린다. 많은 대덕 스님들께서 오신 건



주지 소임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부처님법을 등불삼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포교와 수행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회주 법진 스님은 "재물이 없어도 충분히 보시를 할 수 있다. 자비를 집으로 삼고 인욕행을 옷으로 삼아 수행정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음종 종정 청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비록 법당이 협소해 보이지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는 이보다 더 못한 곳에서 계셨다.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정진하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해인사 비로자나불 국보지정 다례재

10월 26일 보물서 국보로 승격
국내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 확인
역사적·학술적 가치 재조명 계기
팔만대장경 등 삼보 국보로 봉안

성낙두 경남지사장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비로자나부처님 양위 국보지정서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에게 전달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비로자나부처님 양위 국보지정 축하 다례재를 봉행했다. 11월 19일 해인사 대비로전에서 봉행된 이날 다례재는 해인종림 방장 원각 스님의 헌향, 전계사 무관 스님의 헌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헌화, 국보 지정서 전달, 주지스님 인사말, 문화재청장 축사, 감사패 전달, 대중 헌화, 학사대 최치원상 조형물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26일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 대비로전 비로자나부처님 두 성상은 2005년도 4월 개금불사를 위해 옷칠을 하던 중 부처님 성상 내부 벽면 나무판목에 적힌 '중화 3년 계묘년에 여름철에 옻칠하고 개금을 하여 조성하게 되었다' 는 내용의 한문과 신라시대 이두글자가 발견됐다.

2005년 5월부터 연말까지 문화재 관련 담당자 및 학자, 전문가, 언론, 방송, 전국의 불자들이 친견법회를 하고 사실 확인, 탄소 동이원소 과학실험 등 17년간의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 2022년 10월에 서기 800년대 말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비로자나부처님 양위에 대한 국보지정서를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치원상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있었다. 현응 스님은 최치원상 조성에 참여한 정상용 교수, 임병식 진흥공예 대표, 미추홀설계사무소, 홍기종합건설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현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해인사 대비로전에 모신 두 분의 비로자나부처님 성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방장스님과 큰스님, 불자들, 문화재청장, 합천군수, 의장 및 대중스님과 사부대중이 함께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해인사는 비로자나 두 부처님과 팔만대장경, 희랑조사건칠좌상 등 명실상부한 불법승 삼보가 국보로서 봉안하게 되었다. 축하와 감격한 마음을 해인사 대중과 불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해인사 비로자나불 국보지정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불교 진리를 형상화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 두 부처님의 국보지정은 지난 2012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 두 부처님의 높은 조각적 완성도와 뛰어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특히 지정조사 과정에서 두 부처님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이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명실공히 법보종찰로서 해인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인사에 가득한 국보와 보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 주지 현응 스님, 전계사스님, 세민 스님, 산중원로 선용 스님, 혜문 스님, 해인총림 유나 원타 스님, 율주 경성 스님, 박물관장 적광 스님, 진각총무국장스님, 기획국장 학암 스님, 재무국장 응관 스님, 선원열중 성오 스님, 율원장 금강 스님, 학장 보일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윤철 합천군수, 조삼술 의회의장, 해인총림 대중, 해인사신도회, 화엄경완독대법회 동참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문창대로 이동해 최근 조성한 최치원상을 참관했다.

'문창대' 는 최치원 선생 작고 후에 받은 시호 문창후文昌侯)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곳에는 신라 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꽂아놓은 지팡이가 움이 돋아 자란 것으로 알려진 높이 30m 최대 둘레 6m가 넘는 전나무가 있었으나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링링의 피해로 쓰러지자 손자나무를 심어 유전적 계승을 이어 나가는 한편 나무의 잔해를 풍화를 견디어 낼 수 있도록 특수처리된 목재로 재가공하여 최치원상의 좌대 및 주변의 의자로 조성했다. 국내에서는 문화재 지정 해제 후 해제된 문화재로 활용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쌍계사, 인도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동국대 건학위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보시

11월 9일, 3000만 원 기부금 中
1000만 원 印유학생 10명 전달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가 동국대에 재학하고 있는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23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쌍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인도 유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쌍계사는 지난 11월 9일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에 3000만 원을 기부했고 이중 2000만 원을 서부 경남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인도 유학생들에게 기부키로 하고, 11월 23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장학사업에 공감해 주시고 지역인재와 더불어 세계 유수의 인재까지 후원해주신 쌍계사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우리 장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통해 앞으로도 학문에 정진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동국대와 불교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주지 지현 스님은 "인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쌍계사 역시 다국적 스님들이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도량"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도 유학생들이 동국대에서 수학하며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학위원회 박기련 사무총장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조계종 순례단과 불자들이 43일간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유적지를 순례한다"며 "이번 순례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양국이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이번 장학금으로 인도 유학생들이 배움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 한국과 인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동국대에서 수학 중인 인도 유학생들도 양국의 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렉둡텐젠(불교학부 3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쌍계사와 영담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렉둡텐젠 학생은 "어린 나이에 불교와 인연이 되어 출가하게 됐고, 불교 교학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동국대에서 수학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도와 한국불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전북대 문화교류 업무협약

한옥기술과 사찰문화 보급확산기대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옥기술과 사찰문화를 배경으로 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맺었다.

11월 17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한옥기술, 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한옥 및 건축문화를 소재로 교육과 문화의 상호협력 △한옥의 건축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옥건축기술 및 작품, 문화의 교류 △사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선운사는 많은 젊은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교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와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선운사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북대학교와 선운사 본말사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9월 24일부터 선운사 대웅보전 5번기둥의 실측모델을 제작해 선운사에서 전시운영하고 있어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목조문화재의 건축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4차회의 개최

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 논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제4차 회의가 11월 19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발심에서 열반까지-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의 격려의 말씀에 이어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조치, 토론 제안설명, 모둠토론, 토론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원 스님은 격려의 말을 통해 "4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통해 출재가 복지제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과 재가자로 나뉘어 진행된 모둠토론은 출재가 수행복지체계 구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와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토론에 대한 발표에서는 교육, 주거, 의료 부문에 있어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이터의 구축 필요성, 기금 조성과 관련한 재정의 투명화, 중진스님들을 위한 지역별 수행관 건립 필요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신도들의 신도등록 의무화, 종무원에 대한 4대보험 의무가입, 요양시설의 건립과 수목장 운영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4차 회의를 마친 사부대중 원탁회의는 12월 '전북불교 20년 후' 라는 주제로 한 이명호 박사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학 스님, 대원상 상금 동국대에 기부

11월 22일, 2000만 원 전달
수상 상금에 사비까지 보태



제19회 대원상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사진〉이 불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금 전액과 사비를 더해 장학기금 2000만 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22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동국대학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사찰이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학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최한 제19회 대원상 출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대원상 상금 전액에 사비를 더해 이번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학 스님은 이번 기부금을 포함해 불교인재양성 장학, 로터스관건립기금 등 총 1억 3000만 원을 동국대에 기부한 바 있다.

이날 우학 스님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대륜 스님은 "불교의 중심이 되는 동국대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어 자랑스러운 마음"이라며 "우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학 스님은 동국대가 중앙일보 순위 9위를 2년 연속 달성하는 등 학교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고 알려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와 대구 출신 동국대 학생들의 인연이 이어지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1주년 법회



화엄사 광주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은 11월 20일 대웅전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문도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을 포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연성 스님은 지난 1년간의 운영을 통해 수고한 대중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전병호 신도회장과 이미진 부회장, 오금택 부회장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광산구에 자비의 쌀 2000kg과 화엄사에서 후원한 장학금 600만 원을 정광중고등학교 학생 13명에게 전달했다. 연성 스님은 "30여 년 전 화엄사 주지이신 종원 스님과 화엄사 대중스님의 원력으로 빛고을포교원이 탄생했다"며, "앞으로 화엄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부처님 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탑사, 베트남 초교 정수시설 협약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베트남 당락성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에 태양열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진성 스님과 남상준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장, 박성웅 전북베트남교류우호증진협의회 상임이사는 11월 21일 베트남 닥락성 크롱팍현 애크엣사 떤빈읍에 위치한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를 방문해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협약을 맺고 공사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는 탄티눙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사 48명, 학생 603명으로 2개의 분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200명, 분교에서 오전반 200명 오후반 2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크롱팍현 청소년 복지 담당관, 교육장, 장학사, 닥락성 외무부 담당관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응우앤바응옥 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학교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기념공연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의 쌀 전달식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1월 22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해 신도들이 마련한 자비의 쌀 2000kg을 서구청을 통해 서구지역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최성휴 고문, 김용섭 신도회장, 강민엽 부회장, 김이강 서구청장이 참여했다.

최성휴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준비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강 청장도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000kg씩 올해까지 2만 6000kg의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지팥죽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안동사암聯, 12월 17일 동지팥죽나눔축제

2023년 계묘년 새해 희망을 나누기 위한 동지팥죽 행사가 열린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12월 17일 오후 12시 안동문화의 거리와 신시장 사거리에서 '2022 동지팥죽 나눔 축제' 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소속 봉정사, 대원사, 연미사, 광흥사, 유하사, 서악사, 봉서사 등이 참여하여 총 300인 분의 팥죽을 안동시민에게 보시한다. 또한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팥죽 용기를 친환경 용기로 제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실천 활동을 지역에 알릴 계획이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지역민과 동지팥죽을 나눔으로써 새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구례 화엄사 의승병 활약상 조명한다

순천대 남도문화硏·구례문화원, 12월 2일 학술대회

전남 구례 지역 의병과 화엄사 의승병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와 구례문화원(원장 한장원)은 12월 2일 오후 2시 구례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구례의 의병 활동과 성격 재조명'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욱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장이 '임진왜란기 구례 의병의 활동과 기억 전승', 이종수 순천대 박물관장이 '구례 화엄사 의승병의 구국활동',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말 구례의병의 항일투쟁'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경태 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박민영 원광대 원불교사상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中, 티베트 스님 구금…종교차유 침해 논란

키르티사원 소속의 '게쎄' 스님 2명
달라이라마에 보시금 공양 후 체포
일반 국민 역시 벌금…면회금지도
망명 단체, 혐의 철회와 석방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당국에 의해 구금형을 선고받은 라충 겐뒨 스님(위), 소남 갸초 스님(아래). 사진출처=RFA

중국 정부가 동부 티베트에 거주하는 지도자급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에게 구금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라디오 프리아시아(RFA)'와 '티베트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TCHRD)'는 "티베트 불교도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TCHRD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구금된 스님들은 동부 티베트에 거주하는 라충 겐뒨 스님과 소남 갸초 스님이다. 두 스님은 모두 현재 스촨성으로 편입되어 있는 동부 티베트 응아바 지역의 키르티 사원 소속이다. 모두 티베트 불교의 최고 학위인 '게쎄(Geshe)'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사원의 소임자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스님은 인도에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와 키르티 사원의 방장스님에게 휴대전화 송금을 이용하여 보시금을 공양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긴급 체포됐다. 이후 지난 7월이 돼서야, 각각 3년과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스님은 모두 청두 근처 몐양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은 체포된 후 3개월 간 행방불명됐다"면서 "가족과 사원 측에서 행방을 알려달라고 하면 단지 미결 구금 중으로 면회가 불가하다는 답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 스님들의 체포 이후 현지에서 대대적인 검문과 조사가 이루어져 오랫동안 이 소식이 외부에 전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라충 겐뒨 스님은 중국정부가 사찰과 출가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애국교육'에 강력히 반대했다. 소남 갸초 스님 역시 사찰의 주요한 소임자로 중국당국의 부당한 요구에 자주 맞서왔다. 두 스님은 각각 지난해 4월 1일과 3일 밤에 긴급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소남 갸초 스님의 속가 누나로 중국 은행에서 일했던 체링 하모도 함께 체포됐으며, 그의 행방과 상태는 완전히 불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TCHRD는 스님들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사례를 찾았다고 전했다.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68세의 돌마 키 여사 역시 인편을 통해 달라이라마에게 보시금을 공양올린 혐의로 지난 10월 20일간 구금됐으며, 3만 위안(한화 약 560만원)의 벌금과 5년간의 기본 의료보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중국 당국은 구금기간 동안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돌마 여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철저한 감시때문에 가족과 자유로운 면회는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TCHRD와 망명 티베트인 단체들은 중국당국에게 두 스님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할 것을 촉구 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인 체링 하모의 즉각적인 석방과 기본적인 의료권을 박탈당한 돌마 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美, 부처님 가르침 담은 6막 교향곡 공연

시애틀 심포니 수상작
'붓다 수난곡' 교향곡
中작곡자 탄둔 작곡해



'부처 수난곡' 교향곡을 마치고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지휘자 탄둔. 사진출처=시애틀 심포니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교향곡이 미국 시애틀에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17일 시애틀 지역 일간지 '시애틀 타임즈'와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는 시애틀 심포니 수상작 '붓다 수난곡(Buddha Passion)' 교향곡 공연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클래식 작곡가 탄둔(譚盾)이 작곡하고 지휘한 '붓다 수난곡'은 서양식 교향곡과 중국 전통음악을 접목한 총 6악장의 교향곡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가사로 부처님 가르침과 본생담을 묘사한다. 6막으로 구성된 교향곡 중 제3막에서 비파 연주자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떠다니며 천상의 비천을 표현하고, 제 4막 '명상정원'은 달마대사가 면벽수행하였던 숭산의 모습을 음악으로 옮겨 선불교의 기원을 재현했다.

교향곡에서 특히 대중의 찬사를 받는 부분은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후반부다. 몽골의 전통 배음창법인 흐미(khoome)의 거장인 바투바겐이 몽골 전통현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하며 흐미로 반야심경을 노래했다.

붓다 수난곡의 작곡가 탄둔은 "이 교향곡은 본생담 설화를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 삶의 일부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이 곡의 영감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둔황 석굴을 방문했으며, 심야에 몰래 석굴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매우 무섭고 긴장됐지만 석굴 안에서 부처님의 제세시를 상상하며 교향곡 영감을 받았다"며 작품의 모든 영감이 불교에서 왔음을 밝혔다.

탄둔은 1957년 후난성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고, 1986년에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을 계기로 중국을 떠나 뉴욕에 정착했다. 이후 중국영화 '와호장룡'과 '영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 어워드 음악상을 수상했다.

탄둔은 교향곡의 최초의 영감은 돈황석굴 장경동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발견된 고대의 경전들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미술관 관장 미미 가드너 게이트는 "이 교향곡은 예술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불교의 신성한 공간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라며 "시애틀 시민들이 중국 문화와 불교, 그리고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멋진 순간이다. 동서 교역로의 중심인 실크로드가 음악으로 변모하여 동서양의 문화 교차를 장려했다"고 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출가 않고 승려 가능…日 불교계 논쟁 부상

단기강습 · 통신교육으로 득도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우려도



일본 고야산에서 기도하는 스님. 사진출처=pixabay

출가하지 않고 단기강습이나 통신교육을 받아 스님이 될 수 있는 '득도제도'가 일본 불교계에서 논란을 끌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일상서 불교가 필요한 사회 추세들이 합치된 형태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통종파에서는 너무 간편하게 스님이 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득도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출가자 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국가가 규정하지 않고, 각 사찰과 종단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세세하게는 여러 단계가 있으나 대체로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은사를 정해 특정 사찰 문하에서 승적을 받는 '득도(得度)'와 더 나아가 전문적인 교육 및 수행을 겸비한 '교사(教師)'다. 득도는 단지 사찰의 법요를 보조하는 등에 그치지만, 교사는 스스로 주지를 맡거나 법요와 포교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통 교사부터 사찰에 상주하며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출가'로 보며, 득도의 경우도 사찰에 거주하지만 세속적인 업무도 일부 병행하는 형태로 제도가 자리 잡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 엄격한 수행과 교육을 요구하는 '출가교사'에 반해 일반적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수행의 길을 걷는 '재가득도' 인정 사찰 및 교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에 소재한 '도쿄국제불교학원'은 1988년 개설된 이래 조동종과 정토종 등 전통적안 7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강사를 맡아 통신교육과 주말수행으로 1년간 불교의 기본을 배운다. 비용은 24만8000엔(한화 약 240만 원).

학원 측은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입학한 총 2024명 중 799명은 더욱 깊게 수행 하고 있으며, 이중 211명이 재가득도로 승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사회속의 다양한 일로 한계에 직면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이 구원이 되기도 한다. 출가자의 삶을 바라지만 현실과의 병행이 어려운 부분에서 재가득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기존 종단에서 독립해 종교법인을 설립한 도쿄의 한 사찰은 2020년부터 반나절 동안 교리와 습의를 교육하고서 승적을 주는 '득도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15만엔(한화 약 145만 원). 지금까지 대학교수, 경찰관, 의사 등 주로 전문직 종사자 15명이 득도했다. 주지스님은 "사람을 공경하는 불교의 마음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라며 "누구나 재가에서 득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었다"며 득도코스를 개설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재가득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강경하다. 전통 불교 교단들이 모인 '전일본 불교회' 측은 "다른 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득도는 수행의 출발점으로, 이것이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되면 실제 엄격한 교육과 수행을 마친 '본래의 스님'까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에 불교 사후세계 재현 테마파크

옛 사업 거점인 '호파빌라'
호랑이 연고 제조사 설립



화염지옥에서 지옥의 포졸이 죄인에게 불에 굽는 형벌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CNN

호랑이 연고로 유명한 제약회사 '호표행(虎豹行, Haw Par)'의 옛 사업거점이 불교와 연관된 이색 테마파크로 변모해 화제다. 지난 11월 17일 미국 TV 뉴스 채널 'CNN'은 싱가포르의 호표행 옛 사업거점인 '호파빌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소개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호파빌라 테마파크는 중국의 신화, 전설, 역사 등을 담은 놀이공원이다. 그 중 '지옥 박물관'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시왕들의 재판 광경 및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묘사한 어트랙션이 각광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 곳을 싱가포르의 11번째 명소로 선정했다.

불교의 사후세계를 묘사한 전시 체험관은 관객들에게 펼쳐진 참혹한 지옥 광경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쇠스랑 위의 시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머리, 내장을 먹는 악마 등이 3차원 실물 디오라마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생전에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관객은 "기억에 뇌리 박힐 정도로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상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옥 박물관 구성에 참여한 역사학자 제야 아야두라이(Jeya Ayadurai)는 "관객이 죽음에 대한 금기를 없애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옥의 심판을 바라보길 바랐다"면서 "지옥 박물관 속 10대 시왕의 재판과 형벌을 거치며 오늘 우리가 지은 업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지옥을 통과한 후 관객들이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다른 더 깊은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을 공유하고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서른 번째 회원전으로 본 '한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협회 제30회 회원전
'佛의 꽃 피어오르다'
한국미술관 11월 30일~12월 6일

박경귀 회장 등 회원 60여 명 참여
회화 · 조각 · 공예 등 60여 점 전시
전통미 · 현대미 공존 다양한 작품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작가 모임
1980년 결성, 회원 200여 명 활동


고승희作, '불향'


박근덕作, 'Goldgarden V 등대시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국대학교 불교미술 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박경귀)가 제30회 회원전을 개최한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는 '佛의 꽃 피어오르다' 전에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첨단 문명의 혜택과 그 유산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전쟁과 질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무게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박경귀 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등 불교미술 전 장르에 걸쳐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합성수지로 조성한 서칠교의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동으로 조성한 신현일의 '무', 청동의 금박으로 조성한 이재윤의 '아미타불' 등 전통미와 현대미를 동시에 보여주는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고, 권필선의 '사명대사진영', 김석곤의 '달마도', 김선희의 '수월관음도', 김지원의 '중보관음', 도림의 '나한도' 등 전통 탱화와 수묵,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소재와 재료, 기법 등으로 새롭게 해석한 불교회화들을 선보인다.

박경귀의 '자기를 버리다(천 위에 배색)', 신윤영의 '기도(캔버스에 오일)', 이상준의 'mood 3-01(장지 위에 분채, 아크릴) 등 불교미술을 넘어선 현대적 작품들은 불교미술의 새로운 스팩트럼을 보여준다.

예상희의 '영산회상도(견본채색)', 원타의 '사유관음도(면본 위에 채색 / 석채, 분채, 금분)', 유지선의 '수월관음도(견본채색, 금니)', 조은주의 '지장보살도(견본금니 분채안료)' 등 불보살을 주제로 한 불화 분야에서도 전통미를 근간으로 한 현대미를 보여준다.

박근덕의 'Goldgarden V_등대시호(비단에 천연염색 후 채색, 금박, 금분)'와 이채오의 '운룡머리초(나무에 혼합채색)' 등의 단청 작품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강인녕의 '대방광불화엄경 제32권 변상', 명관의 '반야심경' 등 전통적이고 가장 불교적인 사경 작품도 전시된다.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작가의 개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 다른 예술작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심미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불교미술 작가는 창작자를 넘어 교리와 수행에 충실한 불자로서 일상에서 끊임없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미술협회의 30회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무게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한국불교미술협회의 지나온 발자국과 미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별전을 개최하는 한국불교미술협회는 1980년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불교미술 전공 출신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이후 명망있는 다수의 불교 작가들과 연구자, 불모스님이 함께하며 지난 40여 년간 총 29회의 정기전과 특별전을 열었다. 전통문화의 계승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민화 등 전통미술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발전해왔다. 현재는 200여 명의 회원이 전업 작가, 미술교육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불교미술 학술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1984년 제1회 한국불교미술협회전을 시작으로 한국의 전통 불교미술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고 나아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제안하는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불교미술 화단과 학계에 영향을 주는 많은 회원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재 현장에서는 보수 기술자와 단청기술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

박경귀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성찰과 자비는 불교미술에 내재한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자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게 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줍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을 바라보며 작품 내면에 새겨있는 성찰과 자비기호를 읽어내고 동화될 수 있다면 작품을 출품한 회원 모두에게 커다란 보람일 것"이라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2)720-1161.

국립중앙박물관, 태국 문화부 방콕국립박물관서 한국실 개관

디지털 만난 韓불교예술, 방콕을 수놓다

내년 5월까지 실감콘텐츠 선봬
시왕도 등 불교주제 미디어아트
신라-태국 관음상 나란히 전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불교국가 태국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시실이 개관 · 운영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과 태국 문화부는 "11월 19일 태국 방콕국립박물관 마하수라싱하낫 빌딩 401호에 실감콘텐츠 기반의 한국실〈사진〉을 새롭게 개관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2023년 5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 전통 문화유산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디지털 실감 영상 2편을 상영하고, 한국과 태국의 오랜 불교 전통을 상징하는 양국의 불교 조각품을 한 점씩 전시한다.

한국불교만의 사후세계 만나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한 2편의 디지털 실감영상들이다. 이 중 첫 번째 영상인 '영혼의 여정'은 한국불교의 사후세계관을 담았다. 영상은 지옥에서 인간들을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그린 '시왕도'와 '아미타불화'와 같은 전통적인 불교회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10명의 왕에게 3년 동안 심판을 받고, 생전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결정된다고 믿는다. 영상에서는 명부, 저승을 다스리는 열 명의 왕을 그린 〈시왕도〉를 통해 영혼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불교의 지옥은 악행을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아득하고 험난한 심판과 환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 본다.

한국-태국 관음상 비교해볼까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관음보살상 2점을 한 공간에 전시해 양국의 오랜 불교 전통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에서 소개하는 관음보살상은 한국 통일신라시대 관음보살상과 태국 스리비자야 양식의 관음보살상으로, 한국과 태국에 뿌리내렸던 불교 신앙과 예술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국 관음보살상은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관음보살의 상징인 아미타불의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정병을 들고 있으며 화강암 특유의 거친 표면 질감이 돋보이는 상이다. 태국의 관음보살상은 7세기경의 작품으로 역시 아미타불의 화불이 표현됐으며 한국의 관음보살상과는 달리 사암으로 조각되어 부드럽고 매끈한 신체 표현이 대조를 이룬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태국 문화부와의 오랜 협업의 결과로 지난 2019년 두 기관이 체결한 '학술 및 문화 교류에 관한 MOU'와 관련한 성과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주태국한국문화원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번 전시가 이뤄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종료 이후에도 방콕국립박물관 아시아관 내 한국 코너 신설, 상호 교류 전시, 인적 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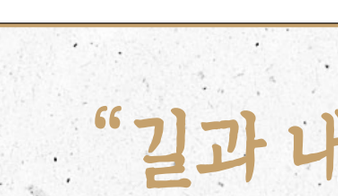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한국의 문화재를 태국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라는 K-Culture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라며 "전시를 계기로 한국과 태국 두 나라의 풍부한 불교 전통을 이해하고, 디지털 영상이라는 매체로 풀어낸 한국 전통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즐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끼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밖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 후원 '공양간'…승가 일상 다루는 무형 문화



공양간의 수행자들
구미래 지음
담앤북스 펴냄
3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 후원(後院)은 흔히 밥을 짓는 공양간과 같은 말로 통상 사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공양간이 부엌의 의미로 한정되는 데 비해, 후원은 대방 · 식당 · 곳간 · 장독 · 우물 등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포괄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 출가수행자는 후원의 소임을 한 단계씩 거치며 정식 승려로 성장해 간다. 그런 연유로 후원은 수행자의 입체적 일상이 담길 뿐만 아니라 수행정진 및 통과의례로서 절집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다. 한국사찰의 후원문화에 반영된 수행자의 일상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주목 받지 못한 승려들의 삶이 무형의 문화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음식' 뒤편에 자리한 승가의 일상을 조명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무형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출간됐다. 또한 이 책은 오랜 기간 불교 의례와 수행 · 생활문화를 주 연구 분야로 삼은 저자가 다양한 문헌 자료 연구는 물론, 7년간 여러 사찰의 후원을 방문해 직접 노스님들께 전해들은 생생한 한국사찰 후원 문화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그 기록이 역사적이고,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며, 매우 생생하다.

지금까지 사찰의 식문화나 후원 문화와 관련 연구는 음식 자체에 쏠려 있었다. '사찰음식'이라는 명제 아래 사찰의 후원문화가 일부 이야기될 뿐, 식생활을 포함한 승가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다. '공양간'으로 대표된 사찰의

7년간 전국의 다수 사찰 후원을 방문
노스님들께 전해들은 생생한 경험담
승가 소중한 일상의 인문학적 접근법
경건한 후원문화 vs 유쾌한 후원문화



후원문화는 승가의 일상을 다루는 무형 문화로, 전승 양상을 제대로 포착해 기록하고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공양간의 수행자들〉은 그러한 바탕 위에 무형문화로서 가치를 지니는 승가의 소중한 일상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불교와 후원문화〉는 후원문화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제 2장 〈불교 후원문화의 역사〉는 초기불교 · 중국불교 · 한국불교로 구분해, 초기불교 당시의 율장 조항과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의 전개 과정에 따른 식생활의 흐름을 살폈다. 3장 〈사찰의 살림살이 공간〉은 공양간, 대방, 물의 운용, 곳간, 방앗간 등 후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출가자의 일상을 다루었고, 4장 〈식량 마련하기〉는 사찰 후원의 최대 과제였던 양식 마련의 근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탁발과 자비량과 자급자족, 보시 등으로 행해져 온 과거 한국사찰 경제 기반의 방편을 여러 사찰 및 노스님의 서술을 통해 기록했다. 이어 제 7장 〈후원의 민속과 세시 음식문화〉에서는 사찰 후원에 전승된 조왕신앙 및 민속과 세시에 따른 음식문화에 대해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어 서술하고, 8장 〈불교 후원문화의 방향성〉으로 끝맺고 있다.

각 장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장점은, 후원문화 역사에서부터 근현대 출가수행자의 방대한 일상사 및 미시사를 빠짐없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근현대를 겪어 온 원로 승려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기록'을 생생하게 서술했다는 점이다. 그 속에는 일상의 경건한 후원문화와 유쾌한 후원문화가 공존한다. 불기(佛器)에 담긴 고봉의 마지는 사찰 후원서 피워 내는 신성한 꽃과 같기에 부처님 마지를 짓는 부뚜막에 조왕보를 설치해 그을음을 차단하는 일이나, 공양간과 채공간을 구별해 마지 짓는 데 반찬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는 일, 공양 소임을 맡은 이들이 부뚜막 위쪽에 자리한 조왕단에 예배를 올리면서 후원의 하루를 여는 일 등 경건함과 정성스러움은 수행자에게 빠질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주먹밥을 싸서 소풍을 가고, 풀을 쑬 밀가루를 모아 수제비를 끓여 먹고, '재에 쓸 곶감을 누가 다 빼먹었나'로 대중공사가 벌어지는 일 등 학인들의 유쾌한 후원문화도 무궁무진하다.

▲저자 **구미래**는?

2005년 안동대 민속학과서 박사학위(불교민속 전공)를 취득하고, 동국대 · 중앙대 · 경기대 외래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불교 의례와 수행 · 생활문화를 주된 관심 분야로 삼아 그간 사십구재, 수륙재, 영산재, 예수재, 팔관회, 땅설법, 감로탱, 불복장, 발우공양, 사찰음식, 전통산사, 사하촌, 탑돌이, 연등, 세시풍속 등 불교 무형문화를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불교 상제례 안내〉 〈한국인의 상징세계〉 〈절에 가는 날〉(공저) 〈진관사 수륙재〉(공저) 〈종교와 그림〉(공저) 〈종교와 의례공간〉(공저) 등이 있다. 월산민속학술상(2013), 묘엄불교문화상(2018), 불이상(2021)을 수상했다.

'참선 수행하는 사부대중' 위한 수행 지침서



감산의 〈백법논의〉 · 〈팔식규구통설〉 연구와 유식불교
허암 김명우 · 구자상 지음
예문서원 펴냄/3만6000원

감산 덕청 스님(1546~1623)은 교학의 제일인자이며 선(禪) 수행자로 선교에 능통해 명나라 4대 고승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김명우 교수와 구자상 교수가 감산 스님이 저술한 〈대승백법명문론논의(백법논의)〉와 〈팔식규구통설〉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 해설해 〈감산의 백법논의 · 팔식규구통설 연구와 유식불교〉로 출간했다.

〈백법논의〉는 세친보살이 5위백법을 간략히 정리한 〈대승백법명문론〉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이고, 〈팔식규구통설〉은 현장 스님이 8가지 식(八識)을 12개 게송으로 압축해 설명한 〈팔식규구〉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이다. 이 두 책을 합본해 〈성상통설〉이라고 한다.

감산 스님은 이 두 책을 '참선 수행을 하는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 지침서로 저술했다. 감산 스님은 주석을 통해 끊임없이 유식과 참선 수행을 연관시키고, 참선 수행자는 반드시 유식을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인 김명우 교수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읽기 시작하면서이다. 3여 년 전 성철사상연구원은 김명우 교수에게 성철 스님의 '유식사상'에 대한 논문 발표를 요청했고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의 유식 법문은 감산 스님의 유식사상에 토대를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산 스님이 저술한 〈대승백법명문론논의(백법논의)〉와 〈팔식규구통설〉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의 토대라는 점에서 한국 불자들에게 의미가 크다. 설명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유식의 핵심 사상인 '8가지 식(八識)'을 12개의 게송으로 압축한 현장 스님의 〈팔식규구〉 게송을 풀이하는데, 그 사상적 근거를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과 감산 스님의 손상좌인 우익 지욱 스님의 주해를 위주로 했다"고 스스로 밝힌다.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과 지욱 스님의 주석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김명우(사진 왼쪽)와 구자상 공동저자의 대담 모습.

禪敎에 능통한 감산 스님 저서
한 · 중 · 일 최초 번역서 의미
성철 스님 〈백일법문〉에 근거
일반 독자들 위한 쉬운 용어로

김명우 교수는 "감산 스님은 책에서 선수행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 부분이 보인다.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선 수행자가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불교학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식을 일반인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명우 교수는 번역 초고를 작성 한 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평소 함께 연구하는 구자상 교수가 용어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저자들은 여러 차례 번역을 수정하며 쉬운 말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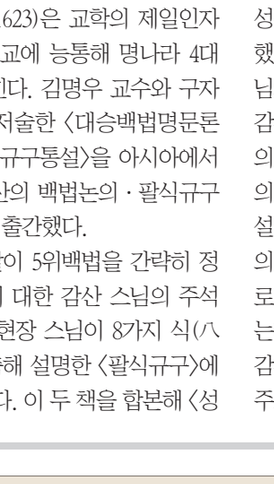
책을 집필한 구자상 교수는 "보통 유식이라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불교 공부를 한 사람조차 어렵게 느낀다"며 "시중에 해설서도 마주하면 어려운 느낌 때문에 책을 내려놓게 된다. 저술하는 동안 독자들이 불친절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세친보살의 〈대승백법명문론〉의 한역본과 한글 번역이다. 2부는 이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인 〈백법논의〉에 대한 번역과 주해이다. 3부는 현장스님의 〈팔식규구〉의 한역본과 한글 번역으로, 〈팔식규구통설〉에서 발췌했다. 4부는 이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인 〈팔식규구통설〉의 번역과 주해이다.

책에는 또한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용어해설'이라는 항목이 있다. 감산 스님의 주석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산 스님이 주석을 생략한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이한다. 또 세친보살의 저작인 〈대승오온론〉, 호법보살의 〈성유식론〉, 안혜보살의 〈대승광오온론〉과 〈유식삼십송석〉, 감산 스님의 손상좌인 우익 지욱 스님의 〈대승백법명문론직해〉와 〈팔식규구직해〉 등의 논서를 추가로 번역해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허암 김명우(虛庵 金銘友)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과 동아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유식사상을 전공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 철학인문교양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집필 활동에 전념한다. 구자상(具滋尙) 교수는 동아대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을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 철학인문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며, 철학 및 동양철학 강의를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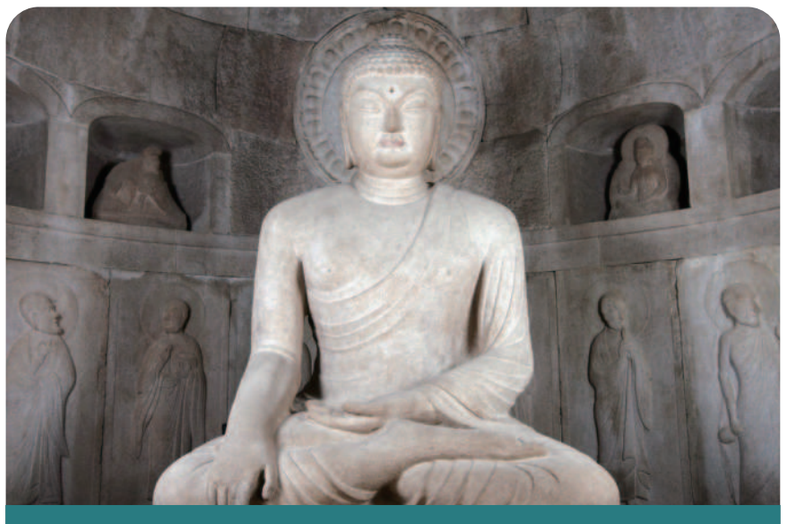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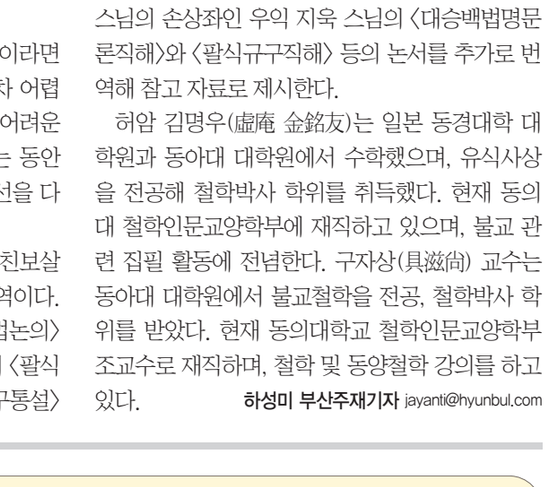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3~11/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정스님이세상에남긴맑고향기로운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6	자애:성냄과여러위험에서자신과타인을보호하는법(법의향기다섯)	일창 담마간다 편역	불방일
2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박찬국	운주사	7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3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8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효록	운주사
5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10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김성철 지음	참글세상

책세상

선종사원, 중생 부처로 만드는 '작불학교'



선불교
윤창화 지음
민족사 펴냄
2만3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선의 원류' '선불교의 모든 것'을 탐구한 책이다. 선종의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선원 총림)의 생활과 철학, 문화, 각종 소임과 제도와 조직, 직제, 가람 구성, 법어의 종류와 형식, 선문답의 기능과 방식, 좌선, 선원의 벌칙, 선승의 입적과 장송 의식 및 소지품 경매, 선원의 차 문화, 선종사원의 정원, 선시와 선화의 기준, 공안, 화두 등 선원총림의 생활문화 전반을 탐구하였다. 〈선불교〉는 2017년에 민족사 학술총서의 하나로 출판된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대중적인 책으로 재출간한 것이다. 이 책을 리메이크하여 출판하게 된 데에는 출판 분야에 있는 지인이 저자에게 보낸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다.

중국 중세(당송시대) 선종사원(선원 총림)은 현세 이익이나 사후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종교적 · 기복적 장소가 아니고, 선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수도장이었다. 선원 총림은 미혹한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위대한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의 공동체였다. 각종 제도, 생활철학, 그리고 가람 구조와 납자 지도 및 교육 시스템은 중생을 전인적 인격자, 깨달은 부처(佛)와 조사(祖師)로 만드는 성불작조에 맞춰져 있었다.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선불교의 4가지 시스템

선종사원의 납자 교육 및 지도 시스템의 목적은 '미혹한 중생을 깨달은 부처'로 만드는 데 있었다. 그 시스템은 법문과 독참(獨參, 개별적인 지도), 청익(請益, 보충 교육), 좌선(坐禪) 이렇게 네 가지였다. 상당 법어 등 법문은 깨달음, 반야지혜를 이루게 하는 차원 높은 작불대학(作佛大學)의 선 강의이고, 독참은 방장과 납자가 1:1의 독대를 통한 개별적인 지도이다. 청익은 보충 교육이며, 좌선은 번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다. 당송시대 선원에서는 상당법어는 5일에 1회(한달에 6회) 있었고, 매일 법문으로 아침 법문인 조참(朝參, 아침 8시경)과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이 있었다. 적어도 한 달에 20회 이상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참은 5일에 1회가 의무적이었다. 오늘날 한국 선원은 이 4가지 시스템 가운데 좌선만 남아 있고, 독참, 청익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 상당법어 등 법문도 결제 · 해제 때만, 그것도 조실이나 방장이 있는 곳에만 이루어져 있다. 적어도 상당법문은 15일에는 1회는 있어야 하고, 독참을 복원시켜야 하며, 임제록 등 중요한 선어록 몇 가지는 제창(提唱)해야 한다. 반면 지나치게 '좌선 지상주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거의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는데 당송시대에는 많아야 하루 5시간이었다. 이렇게 좌선 지상주의가 된 것은 남송 후기-원대이며 우리나라 선원은 이 시대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달마의 발낭 속의 선,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서기 510년(양무제 1년) 보리달마(?~528)가 중국 남부 해안 도시 광저우에 도착했다. 그의 발낭(鉢囊, 바랑) 속에는 선(禪)이 들어 있었다. 선불교의 대표적 공안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는 바로 '그 발낭 속의 선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이는 곧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말로, 참선 수행자들의 영원한 탐구 주제, 과제가 되었다. 벽안의 보리달마로부터 첫발을 내디딘 선불교가 의젓한 하나의 교단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것은 그로부터(달마 중국) 약 140년 후인 사조도신(四祖道信, 580~651)과 오조홍인(五祖弘忍, 602~675)의 동산 교단 때부터다. 이어 낙양과 장안의 대법주(大法主)인 대통신수(大通神秀, 606~706)의 눈부신 활약으로 선불교는 정치와 종교의 중앙 무대인 장안과 낙양까지 진출한다.

선종은 '더부살이, 셋방살이 신세'

그러나 신흥불교인 선종은 아직 당(唐) 초기 중국의 8대 불교 종파의 대열에는 끼지 못했다. 선종은 화엄종 · 천태종 · 율종 등에 비해 토착화 과정이 얼마 되지 않았고, 교단의 기반도 일천하여 그 세력은 계절풍 · 지역풍을 벗어나지 못했다.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독립적인 수행 공간, 독자적인 선종사원이 없는 무주택 상태였다. 선승들은 대부분 율종 사원에서 건물 하나를 빌려서 생활하는 이른바 '더부살이 신세' '셋방살이 신세' 또는 혼자 암자에서 독거(獨居)하는 '독살이 신세'였다.

선종의 독립운동 전개

그러나 율종과 선불교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 그리고 수행 방법과 생활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율종은 불상과 경전을 신성시했고 율장을 강독 · 탐구하며, 계율을 준수 · 실천하는 것이 수행 방법이었다.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이었다. 그러나 선불교는 불상이나 경전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대신 선은 '불립문자 · 교외별전, 즉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한 진수로서, 곧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은 율종을 비롯해 여타 종파에서 중시하고 있는 불상과 경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깨달음의 첩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불상과 경전을 무시하기도 했다. 또 선불교는 직관적 · 비논리적이었다. 한 지붕 두 가족, 이질적인 두 종파의 동거였다.

선불교는 제도 · 법식 · 수행 방법 등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그들은 선종에 맞는 각종 제도와 생활 방법 등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율종 사원에 의탁해 있는 입장으로서 율종 사원의 제도와 규칙과 법식 등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적으로 의존, 종속관계였고, 종속관계는 해탈, 속박에서 벗어난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아니었다. 조사선의 완성자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78), 그리고 그 정통을 잇고 있는 제자 백장회해(百丈懷海) 시대에 이르러 이 문제는 한층 표면화되었다. 이제 선종의 독립, 율종 사원에서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이는 조사선의 완성과 더불어 선승들이 자주성과 주체의식이 강화된 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제법회 후 스님이 무문관의 문을 닫고 있다.

'선의 원류'와 '선불교의 모든 것' 탐구
선불교, 독립된 선찰(禪刹)이 필요해
중국 최초의 선원총림은 백장사이다
사조와 오조 교단부터 선불교에 주목

선종 독립 기치든 백장회해

선종의 독립,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슴에 안고 홀로 붉은 노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단소독보(붉은 노을 속을 혼자 가다)의 노선승(老禪僧)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선승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이다. 그는 6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황벽희운(黃檗希運, ?~850) 등 제자들과 함께 당차게 율종 사원으로부터 독립해 대웅산 백장사를 창건했다. 이것이 선불교 최초의 선종사원이다. 또 그는 생활철학으로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굶어야 한다)을 강조했다. 직접 경작(耕作) 즉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의 생활철학이었다. 동시에 그는 선종사원의 법전(法典)인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했다. 세칭 그를 가리켜 '선종의 건설자' 또는 '총림(선종 사원)의 문을 연 백장대지선사(叢林開闢 百丈大智禪師)'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불교가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하려던 이유는?

선불교가 율종 사원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율종의 수행 방법과 생활방식, 규칙, 그리고 설법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선불교의 목적, 이상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느 종파가 더 옳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율장을 탐구하는 율종과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장하는 선종과는 그 방법론이 달랐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수행 방법과 목적은 직지인심을 통하여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범부를 조사로 만드는 성불작조(成佛作祖)에 있었다. 그리고 종교적 · 기복적 역할을 도외시했다. 반면 율종은 율장(律藏) 탐구가 주된 공부 방법이었고 지계(持戒)가 곧 수행의 척도였다. 계율, 규범을 중시하는 율종과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선불교는 사상적인 괴리가 심했다. 선불교는 그들의 이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생활공간 즉 독립된 선찰(禪刹)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생활방식, 보청법

선불교가 율종 사원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온실을 박차고 노천(露天)으로 뛰쳐나오는 격이나 다를 바 없었다. 많은 대중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구조에서 의식주 문제 등 생활경제는 가장 큰 난제였다. 당시 중국불교의 사찰과 종파는 대부분 황실이나 권력자, 지방 절도사 등 경제력이 큰 재가불자 의존도가 높았다. 한 사찰을 유지 · 운영하자면 큰 후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장회해는 권력자들의 후원을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보청법(普請法, 노동 · 울력)을 제정했다. 수행자 모두가 직접적인 생산 노동, 즉 경작을 통하여 총림의 생활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유인이란 예나 지금이나 관념 속의 이상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왜 곤대 시대인 당송시대 선원을 탐구했나?

지금 한국 선불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기준치는 '선의 원류' '선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는 당송시대의 선이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 선불교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 수 있다. 짝퉁을 알려면 진짜를 알아야 하고 진짜를 모르고는 짝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원류, 뿌리를 모르고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리, 원류에 대한 고찰,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원류로 복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한국 선의 문제점이 당송시대로 돌아가 깨끗하고 개악(改惡)이 없는 '한국 선의 황금시대'로 돌아갔으면 한다.

▲저자 윤창화는?

해인사 강원(13회)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졸업(1999) 등을 졸업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경허의 지음자 한암〉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 등이 있고, 저서로는 〈왕초보, 선(禪)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명저 58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2017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불자 생활 백서〉 등이 있다. 현재는 민족사 대표로 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2

▶ 93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외도의 주장을 논박하는 〈카타왓투〉를 머릿속으로 정리한 뒤 1천 명의 장로들과 논서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결집을 시작한다. 결집은 9개월 만에 끝났고, 아쇼까왕은 담마사절단을 이웃나라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아쇼까왕, 흰 옷 입혀 외도들 추방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을 위해 장소를 바꾸어가며 일주일 동안 내내 설법했다. 〈초전법륜경〉에 이어 〈팔정도경〉, 〈무아상경〉 등에 나오는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암송해주었던 것이다. 마지막 날은 특별히 아쇼까왕이 원했던 바를 설법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외도 가운데 아지비까 교단의 교조인 막깔리 고살라의 교설부터 설법했다.

"막깔리 고살라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결정론을 주장했으므로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붓다께서는 생사 윤회하는 것은 인과 업보에 의한다고 가르치셨지만 막깔리는 모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막깔리는 운명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어떠한 수행도, 선행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행위, 청정함 등이 운명과 상관없다는 것인데 붓다의 중도, 팔정도, 사성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윤회의 길이는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괴로움 속에서 840만 겁을 윤회하며 살아야만 비로소 해탈한다는 것이 막깔리의 주장입니다."

아쇼까왕은 막깔리 고살라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생사윤회는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소. 그렇다면 막깔리는 무엇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우연히 윤회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막깔리의 주장은 결정론이자 우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쇼까왕과 마힌다가 소리 내어 웃었다. 아쇼까왕이 다시 말했다.

"막깔리가 살아 있다면 내가 공포하고 있는 담마 칙령을 비웃었겠소. 그러나 붓다가 왜 위대한지 누가 외도인지는 자명해졌소."

마힌다도 한 마디 했다.

"막깔리의 주장은 숙명론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조차 무용하다는 숙명론입니다. 운명이란 감긴 실타래 같은 것이니 실타래가 저절로 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외도가 있소?"

"푸라나 까싸빠는 도덕을 부정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외도들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악업 짓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시나 공양 같은 선행을 해도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선업을 쌓아도 내생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는다는 주장에 속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이나교 창시자인 나간타 나타뿟따는 숨막힐 정도로 도덕을 강요했고 극단적인 고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을 부정한다면 가정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소?"

"도덕이 필요 없다는 도덕부정론자 외도들은 법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설은 천박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소. 천박한 주장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소. 또 어떤 외도가 있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고 윤회하지도 않는다는 사후 단멸론자 외도들입니다. 아짓따 께사깜발리를 추종하는 외도들은 누구나 현재의 삶이 최초이자 최후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삶이 유일하니 마음껏 욕망대로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죽으면 물과 불, 흙과 공기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단멸론자들입니다. 이들은 보시나 공양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선동하고 다닙니다. 이는 붓다의 담마를 훼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행이나 악행의 과보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 세상은 없으니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며 허황된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믿는 것을 보니 한심한 외도들이오. 그런데도 사람들이 현혹되다니 이상한 일이오."

목갈리뿟다띳사는 산자야처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말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자 외도들도 있고, 파쿠다 깟짜야나처럼 선악의 인과는 없는 것이며, 생명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영원주의자 외도들이 있다고 말했다.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겠소. 고따마 붓다께서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 담마를 설한 위대함에 대적할 자는 땅에도, 하늘에도 없을 것이오. 과거에도 없었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이오. 나는 앞으로도 붓다의 담마를 추종하는 승가를 보호할 것이며, 담마를 권장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더 힘쓸 것이오. 수석장로님께서는 오늘 내게 설법한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두는 것이 어떠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이미 이교도들의 교설이 틀렸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지면 〈까타왓투(Kathāvatthu, 論事)〉라고 이름붙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전날까지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초전법륜경〉을 듣고 '담마의 실천자'로서 신심을 다진 뒤, 오늘 비로소 외도들의 교설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결심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나가자 즉시 호위대장과 경비대장을 불렀다. 호위대장은 추나르에 나가 있는 호위부대 조장의 공무부터 보고했다.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추나르에서 만든 석주들이 예정대로 각 지방으로 운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치언덕에 있는 사원에도 석주를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호위부대 조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조장은 물론이고 석주를 만들고 운반하는 백성과 군사들에게 포상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경비대장도 보고했다.

"아쇼까라마에 외도들이 몰래 반입하려고 한 물건들을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잘한 일이오. 다만 외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마시오. 그들도 수행자들이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아쇼까왕은 두 대장에게 일일보고를 짧게 들은 뒤 조만간에 아쇼까라마에서 외도를 추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소. 아쇼까라마 안에 있는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하여 외도를 추방할 것이오. 그러니 호위대장은 아쇼까라마 안에 당장 임시군막을 설치하시오. 나는 거기에서 휘장을 쳐놓고 심사할 것이오. 경비대장은 군사를 동원하여 아쇼까라마 수행자들을 통제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시오. 마힌다 장로의 허락을 받아 출입을 통제하시오. 또한 경비대장은 궁중창고지기 우두머리를 찾아가 흰 천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시오. 나는 외도라고 판단되면 흰 옷을 입혀 아쇼까라마를 떠나게 명할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명대로 하겠습니다."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 나는 내일부터 심사를 할 것이오."

그날 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를 다시 집무실로 불렀다. 마침 아상디밋따 정비별궁으로 가서 아상디밋따를 문병하고 있던 두 장로는 왕이 부른다는 우두머리 궁녀의 말을 듣자마자 집무실로 달려왔다.

"내일 아침에 심사할 때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마힌다 장로는 우빠굽따 장로가 순례를 떠나고 없으니 아쇼까라마 수행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오."

목갈리뿟다띳사가 힘주어 말했다.

"대왕님께서 원하신다면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막 안에 휘장을 치고 심사할 것이니 외도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오. 낯익은 외도도 있지 않겠소? 장로님을 배려한 것이오."

"대왕님의 담마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아쇼까왕의 태도에 감격했다.

"마힌다 장로는 비록 외도라고는 하지만 군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시오. 군사들이 외도들에게 정중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군사들이 아쇼까라마에 들어와 경계를 섰다. 사원으로 들어오는 문에는 십여 명의 군사가 검문했고, 사원 안 곳곳에는 몇 명씩 조를 짠 군사들이 순찰을 돌았다. 비하르 앞에는 이미 임시군막이 가설되어 있었다. 새벽에 아쇼까왕이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할 것이라는 공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임시군막 앞에는 벌써 수많은 수행자들이 북적거렸다. 물론 1천 명의 불교 장로들이 자신이 계를 준 비구나 사미라고 알려온 수행자들은 심사를 면제해 주었다.

이윽고 노란 가사를 입은 수행자들이 한 사람씩 담마마하마따를 따라서 아쇼까왕이 기다리고 있는 임시군막으로 들어갔다. 담마마하마따가 "대왕님이시여,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자아쇼까왕이 휘장 뒤에서 목갈리뿟다띳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물었다.

"사문이여,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소?"

"고행으로 깨달음을 이루시고 고행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쇼까왕은 고행주의자 외도라는 것을 알고 더 묻지 않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 옆에서 합장으로 외도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호위대장이 군사에게 명령하여 그를 강당에 가두었다. 임시군막에는 또 다른 수행자가 들어왔다. 아쇼까왕은 같은 질문을 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소?"

"인간은 윤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불과 물, 공기와 흙으로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후 단멸론자 외도가 분명했다. 그 역시 강당에 갇히었다. 인간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한 영원주의자 외도나, 진리란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 회의주의자 외도나,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수행이 필요 없다고 말한 숙명론자 외도 역시 강당으로 붙잡혀 갔다.

아쇼까왕의 심사는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이틀 만에 끝났다. 강당에는 외도들이 넘쳐났다. 군사들은 외도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했다. 마침내 수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호위대장이 수많은 외도들에게 노란 가사를 벗게 하고는 흰 옷을 입혔다. 그런 뒤 정중하게 대해주라는 아쇼까왕의 당부와 달리 인정사정없이 아쇼까라마 밖으로 추방했다.

그러자 마힌다가 아쇼까라마에 남은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고, 아쇼까왕은 소리쳐 물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소?"

"붓다께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담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쇼까라마에 남은 수행자들이 똑같은 말로 합송하듯 대답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옆에 있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물었다.

"붓다께서는 논리적이고 타당한 담마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가 대답하자마자 아쇼까왕은 앞에 서 있는 1천 명의 장로들에게 선언했다.

"장로들이여. 이제 아쇼까라마는 청정해졌소. 앞으로는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이 참석할 것이니 온전한 우뽀사타를 행하시오."

목갈리뿟다띳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했다. 다시는 아쇼까라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㉓ 남양 혜충(南陽慧忠) 국사

▶ 한줄 요약
혜충 국사는 숙종과 대종의 두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았으며, 동산법문 계통 남종선서 최초로 無情佛性을 제창하고 중국 선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산법문 계통 남종선 최초 '無情佛性' 제창

당대(唐代)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의 양경(兩京)에는 서역 등지와 동아시아 제국에서 온 외국인이 십만 명이 넘게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각지에서도 인재들이 몰려들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사(安史)의 난(755~763)은 한순간에 중국을 쇠퇴하게 하였다. 송대(宋代)에 찬술된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천하의 호구(戶口)가 10에 8, 9가 없어지고, 주현(州縣)들이 대부분 번진(藩鎭)에 점거당하여 공부(貢賦)가 들어오지 않으니, 조정(朝廷)의 부고(府庫)가 고갈되었으며, 중국에 연고가 많은 까닭에 오랑캐들이 매년 변경(邊境)을 침범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여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그 지역 인구의 70%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재난에 황권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였으니, 당시 황제인 숙종(肅宗)으로부터 국사(國師)로 초빙된 선사가 바로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이다. 혜충 국사는 숙종과 대종(代宗)의 두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았으며, 선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혜충 국사의 생애와 그 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혜충의 전기는 〈경덕전등록〉, 〈조당집(祖堂集)〉, 〈송고승전〉, 〈전법정종기(傳法正宗記)〉, 〈지월록(指月錄)〉 등에 상세히 실려 있다. 〈조당집〉에 따르면, 육조 혜능(慧能)의 제자로 속성은 염(冉)이며, 월주(越州)의 제기현(諸暨縣: 현 浙江省 諸暨縣) 출신이다. 어려서 16세에 이르도록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상대하지 않다가 어떤 선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가 예배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선사에게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지만, 그 선사는 조계산(曹溪山)에 주석하는 혜능 선사를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바로 조계산으로 가서 혜능을 만나 출가를 원하자 혜능은 혜충에게 "너는 성스럽고 밝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육십 년 동안 천자(天子)가 될 것이니, 천자가 되어 불법(佛法)을 위하는 군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지만, 혜충은 "육십 년뿐만 아니라 백 년의 천자라도 원치 않으니, 오직 스승께서 자비로 저의 출가를 허용하십시오."라고 하자 "네가 출가하면, 천하에 홀로 선 부처가 되리라."라고 하며 출가를 허용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후대에 많은 선전(禪典)에서 황제의 지위도 마다하고 출가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혜충은 혜능의 문하에서 깨달음을 인가(印可)받고, 남양(南陽) 백애산(白崖山)의 당자곡(黨子谷: 현 河南省 淅川縣 倉房鎭)에 들어가 40년간 주석하며 교화하였다고 한다. 이후 "상원(上元) 2년 정월 16일에 숙종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長安)의 천복사(千福寺) 서선원(西禪院)에 안치(安置)되었고, 후에 광택사(光宅寺)로 돌아갔다. 숙종과 대종의 앞뒤 양조(兩朝)에서 친히 보살계를 받고, 국사(國師)의 예를 내렸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상원 2년(761)은 '안사의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현종(玄宗)은 파촉의 성도(成都)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민심을 잃어 강제로 태상황(太上皇)으로 물러났고, 장안에서 피난하지 않았던 그의 셋째 아들인 이형(李亨)이 황제에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숙종이다. 숙종은 즉위(756)하면서 하택(荷澤) 신회(神會)를 청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도승(度僧)하게 하였고, 향수전(香水錢)의 세금을 받

혜능 문하서 인가 · 당자곡 40년 주석
禪典서 "황제의 지위도 마다하고 출가"
숙종 · 대종 양조서 보살계 · 국사 초빙
난세에서 사상적 통합을 이룬 선구자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 조전에 있는 육조 혜능 선사 진신상.

았다. 여기에는 불법의 도움으로 난을 평정하려는 것과 군비를 조달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숙종의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어느 정도 전란이 평정되자 숙종은 신회 선사를 궁으로 청하여 설법을 들었으며, 전란으로 소실된 낙양의 하택사를 재건하여 선사를 주석시키려 하였지만, 신회는 건원(乾元) 원년(758)에 형주(荊州) 개원사(開元寺)에서 입적하였다. 그에 따라 숙종은 상원 2년(761)에 같은 혜능의 제자 가운데 혜충을 국사로 청하였고, 보살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혜충을 청하여 국사로 모신 것은 전란으로 인하여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던 의도였다고 하겠다.

이후 숙종이 병사하고, 대종이 즉위(763)하면서 다시 16년을 광택사에 머물렀다고 하니, 최소한 18년 정도를 장안에서 머물며 설법하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도인 장안에서 머물면서 교화하였고, 혜충은 대종에게 상소하여 무당산(武當山)에 태일연창사(太一延昌寺), 백애산 당자곡에 향엄장수사(香嚴長壽寺)를 건립하게 하였고, 승려들을 출가시키면서 각각 대장경 1본(本)을 하사하여 호지(護持)하게 하였다. 또한 대력(大歷) 8년(773)에 다시 천하의 명산에 경(經)·율(律)·선(禪)에 정통한 37인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는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교화와 불교의 부흥에 힘쓰다가 대력 10년(775)에 갑자기 악질(惡疾)이 발생하여 12월 9일에 입적하였다. 대종은 대증 선사(大證禪師)라고 시호(諡號)를 내렸으며, 조서를 내려 40여 년 동안 수행했던 백애산 당자곡의 향엄장수사로 유골을 돌려보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혜충의 제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는 탐원 응진(耽源應眞)이다.

혜충의 선사상은 〈경덕전등록〉 권28에 실린 〈남양혜충국사어(南陽慧忠國師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혜충은 동산법문 계통의 남종선(南宗禪)에서 최초로 무정불성(無情佛性)을 제창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승려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심(佛心)인가?"라고 하자 국사는 "장벽(牆壁)과 기와, 돌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승려가 "경전과 서로 크게 어긋난다. 〈열반경〉에서 '담장의 무정물을 떠나므로 불성(佛性)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불심이라 하니, 마음과 성(性)이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는가?"라고 묻자, 국사는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 승려가 "경전에 이르길, '불성은 항상하지만, 마음은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국사는 "너는 다만 말에 의지하고, 뜻에 의지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추운 날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따뜻한 시기가 되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중생이 미혹할 때 '성'을 얽어매 마음을 이루고, 중생이 깨달았을 때 마음을 풀어 '성'을 이룬다. 만약 무정에 불성이 없음[無情無佛性]에 집착한다면, 경전에서 마땅히 삼계유심(三界唯心)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네가 경전에 어긋난 것이지, 내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는 상당히 유명하며, 후대에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되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무정불성'의 제창에는 복잡한 문제가 함유되어 있다. 중국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조 시기로부터 몇 백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지닌 유정(有情) 중생에게만 불성이 있다는 '유정불성'과 기와나 돌과 같은 무정에도 불성이 존재한다는 '무정불성'이 커다란 갈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동산법문의 도신이나 홍인, 그리고 혜충의 스승인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도 '무정불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으며, 치열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혜충은 〈육조단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당시의 선풍(禪風)을 비판하여, "저 〈단경〉을 개환(改換)하여 누추한 말을 섞어서 성인의 뜻을 깎아버리고 문도들을 어지럽히니, 어찌 언교(言教)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 괴롭다! 우리 종지가 상실되었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다. 그런데 혜충은 어찌 스승의 〈단경〉에서 철저히 비판하는 '무정불성'을 제창하는가?

여기에는 안사의 난 이후 혜충의 사상적 통합에 대한 배려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사의 난 이후는 당조(唐朝)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혜충은 혜능의 남종선을 통하여 중국 전통사상, 즉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의 융합을 도모했다고 하겠다. 중국에서 발생한 유가는 '천(天)'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 '천인합일(天人合一)'을 논하고, 그리고 도가는 '자연(自然)'으로부터 연역된 '도(道)'를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여 '여도합일(與道合一)'을 논한다. 여기에서 '천'이나 '도'는 모두 '무정'에 속하는 존재들이며, 〈단경〉에서 제창하는 '자심(自心)'과 '자성(自性)'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경〉에서는 '돈오(頓悟)'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심'에서 '돈오'를 이룬다면 충분히 외부의 무정물, 나아가 '천'이나 '도'까지도 '불이(不二)' 혹은 '여일(如一)'의 상태에 들기 때문에 '무정불성'을 용인할 여지가 존재한다. 즉, 혜충의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심오한 문제이지만, 혜충 국사가 '무정불성'을 제창함에는 당시 사상적 통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안사의 난 이후에 천태종에서도 '무정불성'을 승인하고 있으며, 화엄종에서는 '삼교합일'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유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불융합'을 제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상적 통합을 제창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상적 통합에 선구자의 역할을 한 이는 바로 당시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아 '국사'의 지위에 있었던 혜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부터 혜충 국사의 사상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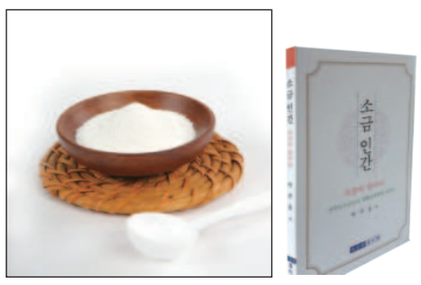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KSQ ISO 9001:2015 한국표준산업적용

동양의학표준과학원 / 동양전문자격사회교육원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 모집

한국표준산업적용 동양의학 침구사 · 접골사 - 안마사 - 추출물가공사에 대한 전문연수교육 및 자격검정관리 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22년12월12일(월)오후2시 사전신청 접수자에 한해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모집과정 : 국제공인자격과정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소정양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취득자격증 사본, 사진 4매(반명함)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일자리창출 (보건의료산업 반영)

특전 직업능력개발 표준교육훈련 위탁사업에 따라 교육부 인정 학교 연계 진학, 전공 관련 국제공인자격 획득,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 사업가능.

문의 동양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409호
☎(02)747-6877 / FAX (02)745-6877 / H.P 010-3319-6877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22 부처님과 오백나한의 인연담



▶ 한줄요약
나한은 불교 수행자가 추구할 목표로 대승불교에서는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들이다. 나한과 부처님에 관련한 본생담은 〈대방편불 보은경〉 '오백강도성불'에서 확인된다. 이를 도상화한 것이 둔황 막고굴 285굴의 벽화로 유일한 재현 도상이다.

오백 도둑들, 부처님 교화로 나한 되다

불교수행자 추구할 목표인 '나한'
대승불교에선 중생 제도의 상징
도둑과 부처님으로 만난 전생담
부처님 교화로 오백도둑 나한돼
막고굴 285굴 전생담 유일 재현



그림 위, 아래는 〈오백강도성불인연도〉, 돈황 막고굴 285굴, 서위 538~539년, 벽화

나한(羅漢)은 아라한(arhat , 阿羅漢)의 줄임말로 불교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인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나한에 대한 설명은 경전과 시대에 따라 다른데, 팔리어 경전에서는 나한이 되려면 반드시 출가하여 미혹을 끊고 성자의 대열에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탐욕과 증오를 줄여야 하며, 죽은 다음 색계나 무색계에 나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이상보다 다른 사람들이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에 남아 있는 역할을 더 중히 여긴다.

오백나한에 관해서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십송률(十誦律)〉 등에 부처님이 사위국(舍衛國)에서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설법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흥기행경(興起行經)〉에는 "여래가 오백나한을 위하여 매월 15일을 기하여 계(戒)를 설했다"라고 기록돼 있으며, 〈법화경(法華經)〉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에서는 부처님이 500명의 아라한을 위해 특별히 수기(授記)를 내리는 인연과 까닭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500여 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더하여 〈오분율(五分律)〉에는 석존의 열반 직후 왕사성(王舍城)에서 최초의 결집(第一 結集)이 있었는데,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암송하여 불전(佛典)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불교사에서 바로 이 결집을 '오백 결집' 혹은 '최초의 결집' 이라고 부른다.

나한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성행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사찰에 나한전(羅漢殿) 혹은 응진전(應眞殿), 오백나한을 모신 경우 오백나한전 ·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이 건립돼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나한이라는 명칭보다는 부처님의 제자 혹은 비구로서, 탐욕과 증오, 고난 등을 이겨 낸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술돼 있다.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에는 "기원정사의 서북쪽 4리 되는 곳에 득안(得眼)이라 불리는 숲이 있다. 본래 오백 인의 맹인들이 정사에 의지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모두 눈을 뜰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맹인들은 기쁜 나머지 지팡이를 땅에 꽂고 부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했다. 그 후 지팡이가 자라나서 커지자 세상 사람들은 이를 중하게 여겨 아무도 베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큰 숲을 이루었다. 이 숲을 득안림(得眼林)혹은 안타림(安陀林, Andhavana)이라고도 한다"라고 오백 맹인과 득안림의 기원에 관해 적혀있다.

그리고 팔리어 자타카 459번째 이야기 '파니야 자타카(Paniya Jataka)' 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먼 과거 생에 왕이셨을 때 도둑질, 욕망, 거짓말, 살생, 음주, 폭력, 탐욕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히말라야로 들어가 수도하셨다. 이때 함께한 500명의 친구들이 훗날 왕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을 때, 500명의 친구들은 모두 아라한이 됐다고 적혀있다.

오백나한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먼 과거생에서부터 부처님과의 수많은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석존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위의 '파니야 자타카' 처럼 친구로, 부처님께서 전생에 상인의 우두머리셨을 때는 오백 명의 상인으로, 코끼리의 왕이셨을 때는 500마리의 코끼리로, 원숭이 왕이셨을 때는 오백 마리의 원숭이로 다양한 전생을 거치면서 부처님을 따르고 죄를 뉘우치며 아라한 과를 증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오백나한의 과거 생 중에서 매우 재미있고 특이한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고자 한다.

북량 천축삼장 담무참이 한역(北涼 天竺三藏 曇無讖譯)한 〈대방편불 보은경(大方便佛 報恩經)〉 제5권 자품(慈品)에 있는 '오백강도성불(五百强盜成佛)' 이야기이다. 아주 긴 이야기와 게송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가다국에 오백의 떼도둑이 있어서 언제나 길을 막고 사람을 겁탈하며 아무 죄 없는 이들을 죽였다. 이에 마가다국의 왕은 곧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병사, 활을 잘 쏘는 병사, 창과 방패를 든 병사, 칼을 잘 쓰는 병사 네 종류의 병사들을 보내어 도둑들을 잡아다 깊은 산의 험준한 곳에 가두어 놓았다. 그리고 도둑을 잡아서 그들의 두 눈알을 파내고 두 귀와 코를 잘라 숲에서 내쫓아 버렸다. 오백의 도둑들이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할 때, 오백 명의 도둑 가운데 한 도둑이 여러 도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거늘 어째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오백 명이 함께 소리 내어 말하기를 '나무석가모니불'이라고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건타산(乾陀山)에 노닐면서, 곧 큰 바람을 일으켜 숲과 나무를 움직여서 전단(栴檀)의 먼지를 일게 하셨다. 이 전단 나무의 먼지를 공중에 가득히 채워 바람으로 깊은 산중의 여러 도둑들에게 불어 가게 하여 도둑들의 눈과 여러 몸의 상처에 닿게 하시니, 원래 몸으로 회복되었다. 오백의 도둑들은 두 눈을 얻고 몸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므로 모두 함께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제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몸이 편안하며 즐거워졌으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응당 속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하리라'라고 하였다.

또한 '아직 편안하지 못한 다른 중생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여야겠으며, 아직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우리가 제도해야 하겠으며, 아직 도를 얻지 못한 중생들을 열반을 얻게 하리라'고 하였다."

위의 〈대방편불 보은경〉 '오백강도성불' 의 내용은 대승불교에서 아라한이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과 구복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에 남아 중생의 제도를 위해 서원한 연유를 적고 있다. 이를 도해한 그림은 현존 유일하게 둔황 막고굴 285굴 서위(西魏) 대통(大統) 4~5년인 538~539년에 개착돼 조영된 굴의 주실 복두형 천장 사면에 자세히 도해돼 있다. 막고굴 285굴은 막고굴군에서 이른 시기에 속하는 굴로서, 아직 나한의 신앙이나 성격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나한의 대승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막고굴 285굴의 〈오백강도성불인연도〉는 긴 두루마리 형식의 화면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먼저 화면 왼쪽은 ①마가다국에 있는 오백 명의 도둑들에게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자, 왕이 철갑옷을 입은 기병, 궁수, 창과 방패를 든 병사, 칼을 잘 쓰는 병사를 보내어 도둑들을 소탕하게 하였다. ②병사들이 오백의 도둑을 호승줄로 잡아서 묶어 깊은 산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피부를 벗기고 두 눈알을 파내었을 뿐만 아니라, 두 귀와 코를 자르고 있다. ③그리고 파란색 전각에 앉아 있는 인물이 도둑들을 무릎 꿇려 죄를 심문하고 남은 죄를 자백받고 있다. ④이후 숲에서 쫓겨난 오백의 도둑들이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하며 눈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⑤이때 오백 명의 도둑 가운데 한 도둑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이를 들은 부처님께서 도둑들의 눈과 몸의 상처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모습과 부처님께 귀의한 이들이 표현되어 있다. ⑥이제 오백의 도둑들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가사를 갖추어 입고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⑦화면의 오른쪽 끝에 오백의 제자들이 깊은 산속에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기 위해 수행정진하고 있다. 〈그림 위, 아래〉

초기의 팔리어 경전부터 대승경전까지 부처님과 아라한의 인연을 살펴보았다. 나한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대중 구제나 현세 구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초기의 불교 경전이나 설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서, 본격적인 대승불교의 시기에 나한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성립된 성격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오백나한의 전생이 도둑으로 서술된 이야기는 불교의 포용력과 자비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시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 운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❺ 대탑 회랑 부조상과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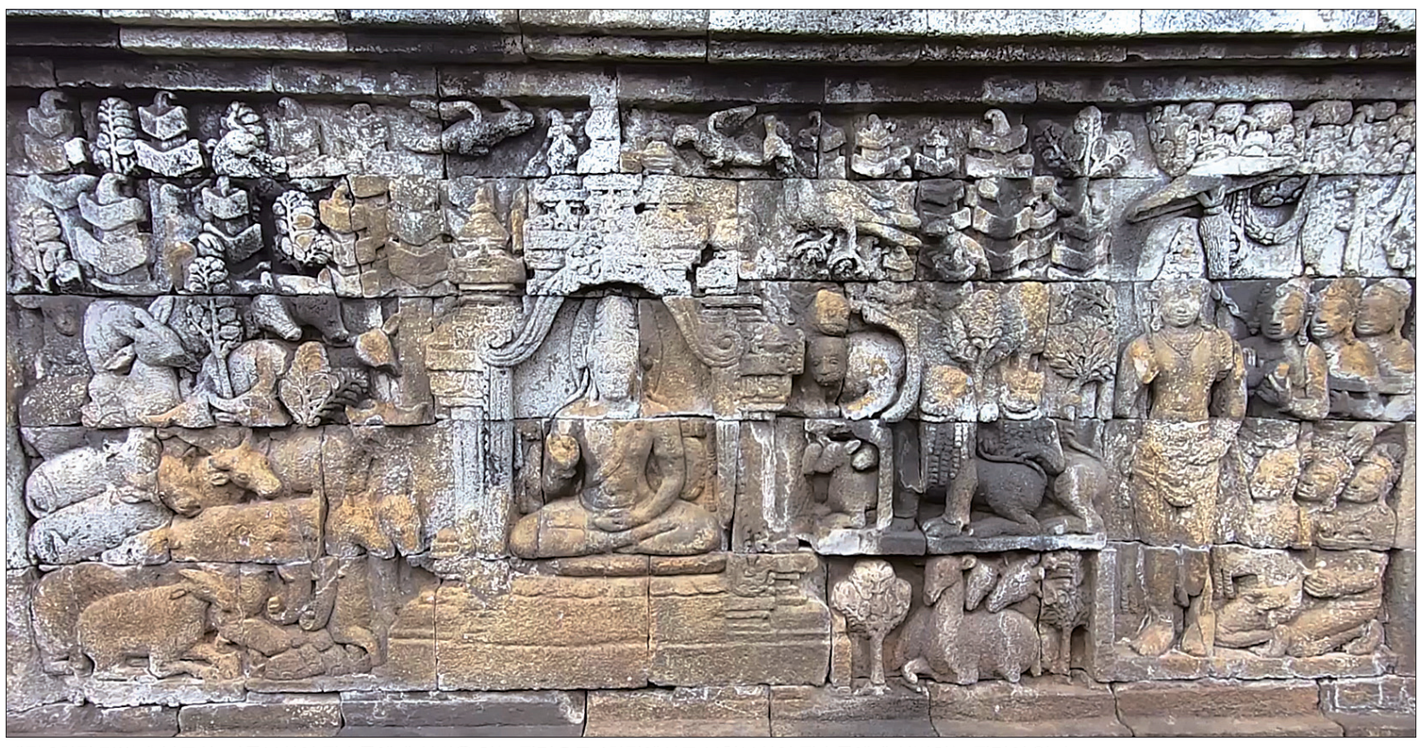


▶ 한줄 요약
보로부두르대탑 회랑 부조들을 살펴보면 〈화엄경〉 '입법계품'과 연결지점이 많다. 3, 4회랑은 '기승전결'서 '전'에 해당된다.

선재동자 구법 여정 담은 塔회랑 부조상들

보로부두르대탑(Borobuduru Stupa)이 '화엄경탑' 임을 드러내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앞서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십지품'의 각 지를 배대해 서로 상응함을 살펴봤고, 지난 연재에서는 대탑과 〈화엄경〉 '입법계품' 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탑의 4개 회랑 중 1회랑과 2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52수행 계위(階位)를 비교했다. 이번 글에서는 3회랑과 4회랑의 부조상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2회랑에는 53선지식이 등장해 수행계위 52계위인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과 배대돼 있다. 128개 부조상 중 126번째와 127번째 부조상에 등장하는 51번째 선지식 미륵보살과 128번째 부조상의 52번째 선지식 보현보살은 부처의 경계에 거의 다다른 계위인 등각과 묘각의 계위를 선재동자에게 가르치고 체험하게 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회랑과 4회랑 전체에도 각각 다시 출현하고 있다.



대탑 3회랑 71번째 부조상. 미륵보살이 짐승들에게 설법을 하는 장면으로 4회랑에서도 보현보살이 짐승들에게 설법하는 장면이 있다.

3회랑(5층) 부조상 분석

3회랑에는 주벽 88부조상과 난순 88부조상이 조성돼 있다. 주벽이 비정 결과가 확실하고 주요 내용이므로 주벽을 위주로 분석한다. 이 회랑과 관련 내용은 80〈화엄경〉 77권의 끝부분에서 78권, 79권까지로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보리도를 이루는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다. 60〈화엄경〉 58권 중 후반부터 59권에 해당하는데, 이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 3회랑 전부를 할애한 것은 51계위인 등각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3회랑 부조상의 주요 내용은 선재동자가 미륵궁의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한 과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미륵궁 속에서 마침내 선지식을 만나고 미륵궁 세계의 장엄함과 각 정각의 선인과 부처의 경계를 만나는 것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다. 부조상 전체가 정확하게 비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미륵보살과 선재동자 관련 이야기임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3회랑 부조상 분석 결과는 부조상의 비정에 있어 논란이 있는 4회랑 주벽 부조상 분석에 패턴을 제공하여 53선지식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입법계품 이야기임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점에 맞춰 3회랑 부조상을 간략 분석한다.

3회랑의 ⅢA2는 미륵보살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으로 4회랑 IVA24, IVA25, IVA29, IVA30, IVA63, IVA66의 보현보살의 설법과 같은 유형이다.

ⅢA8는 IVA24와 일치하며, ⅢA9는 IVA51과 동일한 표현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A16은 IVA 27 비정하는 패턴을 제공하며. ⅢA40은 드디어 선재동자가 미륵보살을 친견한다.

ⅢA44는 Ⅱ70과 같이 보시하는 장면이며 IVA49, IVA19, IVA52, IVA57, IVA64 부조상과 같은 개념으로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이다. ⅢA45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장면인데 IVA68과 같은 유형이다. ⅢA47에 한 발로 선 미륵보살은 IVA60의 공중을 나는 보현보살의 수행에 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행의 깊이를 보인다.

ⅢA55, ⅢA58은 IVA5, IVA11, IVA22, IVA40, IVA51, IVA63, IVA70 부조상 비정에 단서를 제공한다. ⅢA68에서 보이는 기인들의 등장은 IVA32, IVA33와 같은 개념이며 ⅢA74과 IVA31는 똑같이 용신들이 등장하고 있다.

ⅢA71에서 동물들이 미륵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은 IVA55에서 동물들이 보현보살을 친견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위에서 3회랑 주벽의 비정 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4회랑 주벽의 30개 이상의 부조상이 3회랑과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3회랑 역시 4회랑과 유기적 관계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회랑은 선재동자가 그간의 수행 결과를 확장해 입법계품의 52계위 중 미륵보살에게 등각의 가르침을 받는 곳으로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한다.

4회랑(6층) 부조상 분석

4회랑은 마지막 회랑으로 탑의 6층이다. 2회랑 주벽 128부조상 중 마지막 128번 부조상에 변상화돼 있는 53선지식 보현보살의 가르침이 52수행계위의 마지막 계위인 묘각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임으로 4회랑 전체를 할당해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불지에 이르는 가르침을 주는 장면으로 부조돼 있음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쉬(Bosch)를 비롯한 영향력이 있는 선행학자들은 4회랑 주벽을 '보현행원찬'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로부두르대탑 설명서와 박물관 설명서에는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공식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 3·4회랑서 이어져
선지식 만나 깨달음 얻는 내용 재현돼
3·4회랑 부조들 유사한 컨셉들 확인
수행계위의 '기승전결'서 '전'에 해당돼

크롬(Krom)은 3회랑 부조상에 대해 미륵보살의 출현을 확실시하였으나 3회랑 부조상 19번을 보현보살 출현으로 비정하고, 거기서부터 '입법계품'이 아닌 '보현행원찬'의 내용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의 제시는 이후 보쉬가 4회랑 주벽을 보현행원찬으로 비정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보현행원찬이 〈화엄경〉류로 분리돼 대탑이 화엄탑임을 주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불지에 이르는 체계적 수행의 계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전통 〈화엄경〉의 화엄계위적 입장에서는 '보현행원찬'을 화엄계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현행원찬'은 인도승 불공(不空, Amoghavajra)이 746년에서 774년 사이에 산스크리트본을 한역 역경한 경전이다. 그 후 이역으로 반야삼장에 의해 40〈화엄경〉이 편찬된 시기에 40권에 편입된 보현행원의 중송분이 있다. 40〈화엄경〉은 본래 이름이 '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이다.

특히 40〈화엄경〉마지막 40권에 보현보살 10대 행원과 중송분(보현행원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권을 '보현행원품'이라 주로 칭하며 중송분을 '보현행원찬'이라 한다. '보현행원품'은 기존 〈화엄경〉 경전에 없는 내용이다.

'보현행원찬'은 불공이 역경 당시 독립된 경으로 유통됐는데 그 후에도 '보현행원찬'이나 '문수사리발원경' 이름으로 유통됐으며, 반야가 40〈화엄경〉 편찬 시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현행원찬'은 독립 경전으로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찬탄하기 위한 게송임을 알 수 있다.

불공이 '보현행원찬'을 역경한 시기 보현보살 10대 행원은 단독 경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는 40〈화엄경〉 역경 전(前)으로 보현보살 10대 행원에서는 선재동자가 등장하여 아미타부처의 세계로 가는 가르침을 받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시기다.

따라서 반야의 중송 부분과 불공의 보현행원찬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고 있기에 원래 보현보살 10대 행원과 '보현행원찬'은 선재동자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쉬가 '보현행원찬'이라 주장한 것은 40〈화엄경〉의 중송분임을 알 수 있다. 보쉬는 선재동자가 거의 다 출현하는 4회랑 주벽 72개 부조상을 '보현행원찬(중송분)'을 이용해 비정을 시도하였다.

그는 4회랑 비정에 있어 보현행원찬 62찬 중에 10개의 찬을 31개 부조상을 비정하였다. 폰테인(Fontein)은 추가로 19찬을 가지고 28부조상을 비정했다. 히카타(Hikata)의 대표적 비정은 57찬을 이용한 72부조상이다. 이들에 의해 보현행원찬 62찬 중 총 35찬이 적용돼 4회랑 주벽 72 부조상 중 60개 부조상이 비정됐다. 그러나 비정의 결과는 일치도와 시각적 일치도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하나의 게송에 여러 부조상에 적용시키기 모호한 비정이 많으며 어색한 장면이 여럿이다.

이러한 비정의 어색함과 보로부두르대탑이 건설시 40〈화엄경〉의 인도네시아 사일렌드라왕국에서의 유통 여부의 불확실성은 4회랑 주벽의 소의경전을 '보현행원찬(중송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화엄경〉 '입법계품'의 계위적 입장에서 4회랑의 부조상의 이야기는 대탑 1,2,3회랑과 유기적으로 연관선상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 회랑의 내용을 수행계위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1회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다가야에서 〈화엄경〉을 설하고 계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기'에 해당하고, 2회랑은 선재동자가 선지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어가는 점차적인 수행계위인 50계위를 보여주는 '승'에 해당하며, 3회랑은 51선지식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법을 자세히 전달하여 51계위 등각에 이르게 하는 계위이다. 3회랑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유기적 측면에서 판단하면 4회랑에는 입법계품의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리도에 이르는 법을 설하는 장면들과 법계와 불계에 이른 장면들이 나와야 한다. 이 계위는 52계위의 마지막 묘각의 자리로 불지에 이르러 보현보살과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4회랑의 주벽 부조상 72면은 보현보살과 선재동자가 출현하는 장면들로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등장한다는 면에서 '입법계품'과 '중송분(보현행원찬)'이 같다. 그리하여 단순히 부조상을 통해 둘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가 소의경전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조상의 소의경전을 찾기 위해 보현행원찬과 부조상을 서로 대응시켰듯이 입법계품의 보현보살과 선재이야기 경전 내용을 사건별로 구간을 잘 나누고 부조상들 또한 등장인물별로 특징지어 나눠 서로 대응시켜 배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전과 부조상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4회랑 주벽 72부조상을 특징별로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유형 구분은 앞 회랑의 부조상의 유형적 특징 또한 참고하였다.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 중 53번째 선지식 보현보살과 선재동자의 내용을 6가지 패턴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4회랑이 1·2·3회랑과 더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다음 글에서 밝힐 것이다. 결과적으로 4회랑이 입법계품 52계위인 묘각의 내용임이 드러낸다면 대탑10층이 〈화엄경〉 '십지품'을 재현한 내용과 함께 '화엄경탑'임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아제여행사 대표〉

원스톱 시스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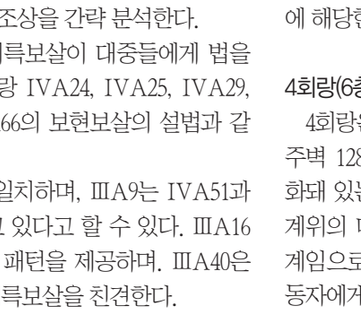
수 없이 겪는 법당 현장이지만 심오한 사찰 음향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부근 지방 업자들의 단순 기술시공 결과! ..... 염불 스트레스 누적과 만성피로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명품사운드 훈련강사 서울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인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 최고 시설로 많은 절약과 후회가 없다는 뜻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들어보세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사찰 시설비용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송진식 / 출력 300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명품소리 훈련강사 박 공 희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태 징

법당천도법고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누구든지 본래 마음엔 번뇌가 없었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㊺ 제일의의 지혜

〈원문〉 "세존이시여, 금강과 같은 지혜가 곧 제일의(第一義)의 지혜이니 성문이나 연각으로서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성제(聖諦)를 처음 본 지혜는 제일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둘이 없는 성제를 아는 지혜로써 모든 주지를 끊어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응등정각은 성문·연각의 경계가 아니니 불가사의한 공의 지혜(不思議空智)로써 온갖 번뇌의 장애(煩惱障)를 끊어버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 번뇌의 장애를 끊으면 곧 최후의 완성된 지혜(究竟智)가 되니 이것을 가장 으뜸가는 지혜(第一義智)라 합니다. 처음으로 성제를 안 지혜는 최후의 완성된 지혜가 아니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는 지혜일뿐입니다.

세존이시여, 성(聖)의 의미는 성문·연각의 경계가 아닙니다. 성문·연각은 한정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연각은 부분적인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이름을 성인이라 하나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하는 것은 성문·연각의 법이 아니며, 성문·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진리는 여래·응등정각께서 처음으로 깨달아 아시고, 그 후에 무명의 껍질에 가려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 보이시고 연설하셨으므로 성스러운 진리(聖諦)라 합니다.

〈강설〉 성문(聲聞)의 수행은 사성제를 닦아서 번뇌를 끊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승만경〉에서는 성문과 연각의 사성제는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의 지혜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래의 사성제라야 출세간의 상상지(上上智)가 되며, 제일의 지혜가 된다고 하였다.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성제를 닦아 번뇌를 끊어가는 이승들의 수행이 여래의 경지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성제를 통한 수행의 정도가 소승과 대승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사성제가 단순한 하나의 교리해설이 아니라 번뇌를 없애는 수행의 실천요목으로 어느 정도 닦았는가로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승만경〉에서는 소승인 이승(二乘)의 사성제를 작성제(作聖諦)라 하고 대승의 사성제를 무작성제(無作聖諦)라 하여 작(作)과 무작(無作)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작(作)은 작위(作爲)로 의도적으로 애를 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순수성이 그대로 완전하게 있는 것을 무작위(無作爲)라 한다면 작위는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다. 지음이 있는 작사성제와 지음이 없는 무작사성제를 말한 것은 이승의 사성제와 대승의 사성제를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 의해서이다. 생사를 말하면서도 유위와 무위를 말했는데 유루법(有漏法)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 유위생사다. 반면에 무위생사는 변역생사와 같은 뜻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비원력에 의해 능동적으로 생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보살의 경지에서 생사를 받는 것이다. 중생도 무위중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무위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보살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을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으로 구분하는데 인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현상은 생멸이 있으므로 유위법이라 하고 무위법은 인연 생멸법의 범위를 벗어나 인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달리 설명하자면 마음에 생멸이 남아 식심(識心)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것은 유위며, 생멸이 사라져 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위다. 세간법은 유위의 경계며 출세간법은 무위의 경계다. 유위가 유루이며, 무위가 무루이다. 일체 번뇌의 장애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최후의 완성된 지혜 구경지(究竟智)라 하고 제일의지(第一義智)라 한다고 하였다. 이 경문의 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지혜라는 것이 번뇌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본래의 마음에는 번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번뇌를 객진번뇌(客塵煩惱)라 부르기도 한다. 바깥에서 들어와 있는 손님과 같은 번뇌라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몸·호흡·마음 고르게 하는 세 단계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㊽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셋째, 몸·호흡·마음 함께 조절

불자 여러분! 참선을 할 때는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여 고르게 해야 합니다.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선에 들어갈 때이고 두 번째 단계는 참선 중에 있을 때이며 세 번째 단계는 참선에서 나올 때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에서는 몸과 호흡과 마음을 고르게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선에 들어갈 때와 참선 도중과 참선에서 나올 때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을 바르게 조절하는 법

참선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먼저 몸이 바르게 안정이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록 참선을 시작하기 전일지라도 몸의 행(行)·주(住)·좌(坐)·와(臥) 등 일체의 동작에서 몸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의 동작이 크거나 거칠면 바로 호흡이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호흡이 커지고 거칠어지면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선할 때도 마음이 산란하여 평온상태로 선정·삼매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상태로 몸을 조절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좌복을 놓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좌복에 앉아 몸을 늘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좌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좌복에 앉아 먼저 스스로 온몸을 안마합니다. 몸과 함께 모든 팔다리의 마디를 흔들어 움직이는 일을 7~8회 정도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안마하되, 손이나 발이나 차별이 없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 앉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다리를 반드시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만일 반가부좌를 한다면 오른편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놓고, 끌어 당겨서 몸에 가까이하여 오른편 발가락이 왼편 허벅다리와 가지런하게 놓고, 또 왼편 발가락은 오른쪽 무릎 허벅지와 가지런하게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허리띠와 옷을 느슨하게 풀어서 바르게 입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손을 펴서 왼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맞대는 선정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하게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고 끌어당겨서 몸 가까이 한 후 알맞게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은 몸을 바르고 곧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 척추를 단정하게 펴서 곧게 하여 등뼈들이 서로 가지런할 수 있도록 굽지도 높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량골을 바로 세워서 머리와 목을 바르게 하고 코가 배꼽과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하되 기울지도 비스듬하지도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머리는 숙이지도 쳐다보지도 말고 얼굴을 평평하게 정면으로 향하도록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 먼저 심호흡을 크게 3~4회 하여서 폐 속에 있는 탁한 공기를 모두 몸 밖으로 내 뱉어야 합니다. 입을 열고 천천히 공기를 내보내되, 공기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입으로 불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폐 속의 탁한 공기가 모두 나간 후에는 입을 다물고 콧속으로 맑은 공기를 넣습니다. 이때 들숨때는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다물되 입술과 이빨이 겨우 서로 맞닿을 정도로 하고, 혀는 들어 말아서 혀끝이 위 이빨과 잇몸 사이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때는 바깥 빛이 겨우 차단될 수 있도록 눈동자는 정면으로 향해 응시하고 눈꺼풀만 자연스럽게 살며시 내려 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좌복에 앉아있는 몸의 상태가 단정하고 바르게 앉아있는 것이 마치 배의 닻돌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은 이완시키되 너무 느슨하게도 너무 조이지도 말고, 좌선 중에는 손을 움직여 몸을 자주 긁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㊺ 아쌀라야나의 경 1

모든 생명체는 佛性 있다

"아쌀라야나여, 만약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이 와서 사라수, 사라라수, 전단수 또는 발담마수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있고, 광채와 광명이 있어 바로 그 불꽃으로만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민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도 개 먹이통, 돼지 먹이통, 세탁통이나 엘란다 나무의 부싯목을 가져와서 불을 지펴서 불빛을 밝힌다면, 바로 그 불꽃만이 화염이 없고, 광채와 광명이 없어, 그 불꽃으로는 불을 만들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하고 넘어간다면, 이 말의 함의(含意)와는 거리가 있다. '일체(一切)'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슷한 결이 '무(無)'자 공안이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물음에 조주 스님께서 '유(有)'라고 답했을 때, 수행자들 대부분 부처님께서도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렇지' 긍정하며 자신의 견해에 빠져 듣고 견해로 알아버린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다시 그 물음에 '무(無)'라고 하셨다. 똑같은 대답이지만 이제는 그것에 '어째서?'라는 의문을 가진다. 조주 스님은 의문을 가지게 하려고 '무(無)'라고 답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행자들은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수행한다. 처음에 '유(有)'라고 하신 말씀에서 회광반조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에 대한 앎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럼 왜 여기에서 계합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확연한 답을 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확연한 답을 구하고 있는 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보지 못한 탓이다. 나중에 알고 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였는지 알게 되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 즉(卽)하여 들어야 하는 온전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즉답을 어떻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쉽다는 말조차도 틀린 말인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 말하고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있었을 때 하는 말이지만,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말, 그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다.

육조스님은 이것을 단박에 그렇게 보아버렸다. 그리고 황매산에 가서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 그러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때 홍인대사 옆에 있던 누구도 육조스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손에 상처투성이의 나무꾼 혜능을 바라보던 반대편 노승은 실눈을 가느다랗게 치켜뜨고 무거운 입을 뗐다.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인가?", "영남(嶺南)의 백성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이에 홍인대사가 "그대는 남방 출신의 오랑캐여서 불성이 없거늘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라고 찔렀다. "사람에겐 남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성엔 남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홍인대사가 혜능을 알아보고 서둘러 시자에게 방아 찧는 곳으로 보내라 하였던 것이다.

육조스님은 〈금강경〉의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主 而生其心)'에서 마음의 장애를 벗어났다. 풀이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다. 그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일체와 같은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은 하나 이외의 다른 마음이 없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버릴 수 있겠는가. 마음은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일체의 마음을 잊고 다시 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마음은 움직임이 없다. 마음이 물질을 가졌다는 마음이 있겠는가? 만약 물질을 가졌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바로 스스로[無我]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부족을 모르고 원망을 모르고 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불교 상용의식집을 소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漢文/한글(겸용)불교 상용의식집을 편찬한 성묵스님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신앙생활이 바뀌듯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한글을 보유한 민족으로 그동안 한문경전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알기쉬운 우리말 경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말)예경/각청·수계/방생편(11)권과...천도/시식·장의편(12권)을 통합하여 2권으로 축소 편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곳 TEL. 054-974-1345 HP. 010-7144-7339 (총무)

아울러 함께 창종 발기인으로 종단을 시작하실 대덕스님들을 모십니다.
이미 종단은 2020년에 허가와 종단협회 가입까지는 완료됐으나 코로나 관계로 중단되어 다시 출발하려고 하오며, 현재 종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함께 하실 뜻이 있으신 대덕스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연락주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 010-5277-8024 (성묵 스님)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4호 | 17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범음 · 범패

범음범패, 각단예불의식, 천수바라, 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전화 010-7579-8200

16나한님 모셔갈 분

연식이 오래된 것입니다.

❊ 대구지역 ❊

2천6백만원 (절충가능)

010-9193-1779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관 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 상담문의 ▣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 • •

경상도가 고향인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비구니 스님을 상자로 모십니다.

• • •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010-6893-5040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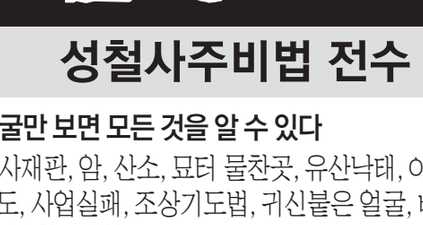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4호 | 18 | 전면광고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증상에 따라 약을 주어
우리 마음의 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 가전제품 보시 •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 절터, 산소자리 적합
-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3억원

010-4835-1739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법당인등 1천불, 영가인등 1천불
- 100미터 지하석수, 실외 화장실 2개, 상수도, 5미터 도로, 심야보일러, 에어컨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 명학역 도보 10분
-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 약 55평(법당, 주방, 침실, 서재)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90평
-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령1동211-164(62-2) (마산 제일 여고 뒤)
- 임야(자연녹지)1800평, 대지 60평, 전(땅)120평, 법당 20평, 요사채
- 가액 : 3억5천만원

010-8762-9870
010-9978-5453

사찰(급)안내

-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사찰건물 전세 • 9층건물 6층 불교대학, 7층 대웅전, 각층 100평 최고시설 • 동삼존불, 대웅전50평, 산신각10평, 종무원20평, 스님접견실 20평, 사워실 • 전세2억원 / 보증금5천만원 월 150만원(시설비상담) • 주차장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700-1350
010-5883-225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사찰 법당 3채 및 요사 1채
대지 : 136평 규모
가액 : 3억원
가격 절충 가능

010-4509-4061

사 찰 안 내

- 익산마을 끝자락 조용한 곳
-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 산신각 요사채 문화재급 약사여래불 모심, 법당집기 일체 포함
- 사유지 포함 약 1,000평의 법당, 3억 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 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임법당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 가액 : 4억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멋진사찰(급급)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조 그 마 한 사 찰 전 · 월 세 안 내

- 보증금 : 2천만 원
- 매 월 : 20만 원
- 몸만 오시면 됨 (일체 구비 됨)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4길 14

010-3938-4646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 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149기 철학수련생 모집

◈ 자격 : 주지스님 및 비구, 비구니
◈ 달마대사의 사주비전책과 만세력 세계를 집필하신 선사께서 직강 및 개인지도
◈ 수련생 3개월 : 450만원
◈ 개인지도 3개월 : 550만원
◈ 기업은행 : 012-027395-01-017 달마사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010-4466-4804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1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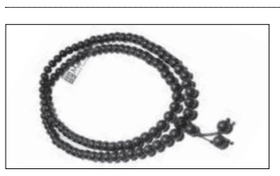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㉒ 보이차 열배 즐기기 2

지방조직 중량 줄이는 효과 탁월

기름기 많은 육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즐겨먹는 현대인들의 경우 비만,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장질환을 앓는 경우 보이차를 마시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방식에 관한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건강을 돕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보이차 효능에 관한 연구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여 건강분야의 바이오산업과 생명공학과 의학 분야 협업 등은 보이차 연구에 어느 때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서양 의학이 보내는 메시지는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와 역병이 창궐하는 시점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하는 일이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1970년대 보이차가 프랑스로 수출되면서 1797년 보이차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불씨를 당겼다. 프랑스 의학계는 40명의 성인 남녀에게 보이차를 음용하게 한 후 체중의 변화를 측정했다. 이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평소의 식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남의 보이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성 지방의 수치가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양의학이 보내는 메시지를 동양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보이차의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밝혀진 보이차의 대표적 효능은 혈중지질농도를 낮추고 살이 빠지게 해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암을 예방하고 위를 보호하거나 노화를 늦춰주는 효능 등이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생활에 의한 비만 성인병 기저질환 신경성 정신질환 아토피등 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시는 음료에서 시작된 보이차가 약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일 것이다.



먼저 보이차와 고지혈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고지혈증은 혈액 안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병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흡수되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저장된다. 그리고 다시 간은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바꾸고 이를 혈류로 방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신진대사로 인하여 사람들의 혈액 속에는 지방이 들어 있기 마련인데 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높아진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의 콜레스테롤은 사실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고지방 식단과 음주로 인해 비만 · 당뇨 · 간질환 · 신장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과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혈중콜레스테롤이 과잉상태가 된다. 물론 고지혈증의 예방 치료의 기본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스스로 식욕이라는 욕망을 알아차려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필자가 병원법당 소임시절이나 마음정원에서 만난 뇌질환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스 사경증 등 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대부분이 고단백질을 좋아하는 식단들이였다고 들었다. 중성지방을 줄이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따뜻한 물과 한방차나 계절약차 보이차나 녹차에 들어 있는 티폴리페놀이나 차다당의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내의 지질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보이차는 혈중지질 감소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연구에 따르면 보이차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지방조직의 중성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지방조직의 중량을 줄이는 효과가 녹차보다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4개월 동안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고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지단백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콜레스테롤은 지단백이라는 분자 속에 있고, 지단백의 구성요소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저밀도 지단백(HDL-Ci How-Density Lipoprotenin Cholesterol) 속 콜레스테롤은 조직세포 내로 흡수되어 고밀도 지단백이 조직세포내로 흡수된 콜레스테롤을 흡수되지 못하도록 청소를 담당하는 포식세포에게 흡수당하게 된다. 저밀도 지단백으로 가득찬 대식세포는 혈관 내막에 쌓이며 지방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방 침전물의 증가는 동맥경화,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신진대사 때문에 저밀도 지단백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이차에 대한 인체실험 및 동물실험을 진행 결과 보이차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중국에서는 60대의 혈중지질 이상 환자들에게 보이차 편을 복용하게 한 후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이차에 들어 있는 티 폴리페놀은 총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어 보이차의 티폴리페놀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이차의 혈중 지질의 감소가 오룡차나 홍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건강
㉒ 생로병사의 비밀과 소금

법 때문에 늦어진 국내 미네랄소금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3가지라고 언급하면서 지방, 설탕, 소금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다.

각각 1시간이라는 긴 분량으로 꽤 밀도 있는 취재를 통해 알찬 내용으로 제작 방영되었다. 그중 소금 편 역시 1시간 분량으로 편성되어 소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소금과 건강, 현재 소금의 문제점, 소금의 장단점, 세계 여러 나라의 소금을 비교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여 주었다.

핵심을 간추리면 현재의 소금은 나트륨이 너무 많고,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하면서 저염, 고미네랄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소금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대안으로 2개 회사의 소금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소금이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 나트륨은 적고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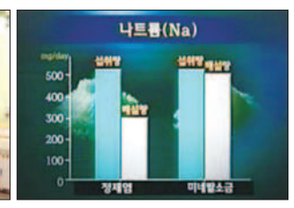




KBS 생로병사의 비밀 소금 편에 먹어도 좋은 건강 소금으로 소개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핀란드의 소금과 일본의 누치마스사의 소금이 언급되었다. 핀란드의 소금은 암염에 여러 가지 미네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나트륨 함량을 줄인 소금이었고,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은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담아냄으로써 나트륨 함량은 줄이고 미네랄 함량은 높인 소금으로 소개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소금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소금이 제조되는 원리, 성분, 효능 등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졌다.





쥐 실험을 통해 섭취된 나트륨이 전부 배출되는 것을 확인 고배대학교

주요 내용은 바다의 미네랄을 그대로 살린 소금이라는 것과 그래서 염화나트륨 함량이 낮다는 것,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섭취된 나트륨이 전량 배출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소금을 먹고 고혈압 등의 질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였다.

'생로병사의 비밀' 소금 편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소금,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고 도움이 되는 소금,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금이라는 의사와 전문가, 방송국의 설명은 아픈 환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수백만의 고혈압 환자를 비롯한 많은 생활습관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소금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미네랄 소금을 제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오씨아드의 문을 두드렸다. 그 소금을 구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쳤다.

하지만 그 좋은 소금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일본에서 수입도 할 수가 없었다.

단 하나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다. 저염 소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너무나 많아서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소금이 아니니 소금으로 생산도 판매도 수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게 법이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법의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치마스 소금은 73%이니 도저히 소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입도 안 되고 한국에서 생산도 할 수 없는 소금, 그것이 당시 미네랄 소금의 현주소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KBS는 세계 최고의 소금이라고 방송을 한 것이었고, 오씨아드는 그 오랜 세월 미네랄 소금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하였던 것이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많으니, 심혈관질환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많으니,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많으니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소금은 오로지 나트륨만 많아서 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미네랄은 필요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정이었다. 그리고 그 법에 기초해서 모든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러 법이 개정되었다. 해양심층수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고,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염화나트륨 70% 이상이면 소금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래서 생산과 판매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미네랄이 많은 소금을 만들어도 된다고, 드디어 세상이 바뀐 것이다. 법을 만들고 규정을 바꾸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는 많은 사람은 알 것이다. 오씨아드 엠큐눈소금은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소금이다. 생산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잘못된 법과 규정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이 긴 세월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에 일본의 누치마스 소금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미네랄 소금을 소개한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KBS 관계자분들은 알고 있을까? 식약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까? 엠큐눈소금을 구입해 먹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사연이 있었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 탄생한 소금인지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제시한 고혈압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바로 엠큐눈소금이다. 그때 제시한 일본 소금보다 더 뛰어난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⑫ 죽음의 종결



▶한줄요약
무명을 파괴해 태어남과 죽음이 함께 제거되는 것이 극복이다.

불교의 죽음과 극복 '불방일'
〈不放逸〉



죽음이 반드시 한 생명의 종결로만 정의될까. 다른 측면에서 죽음을 볼 수는 없을까. 불교에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생명은 지속되지만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방일(放逸, pamatta)이다. 방일을 통해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다른 측면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법구경(Dhammapada)〉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고, 불방일은 불사(不死)의 길이다. 불방일하는 자는 죽지 않으며, 방일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방일(放逸)은 마음을 놓아버리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말하며 '나태한' '태만한' '게으른'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일은 '어떤 자극 속에 빠져 정신이 마비된 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방일의 반대말은 'appamatta'로서 'appamatta'는 부정접두어 'a'와 'pamatta'가 합쳐진 것으로 불방일(不放逸, appamatta)을 말한다. 〈법구경〉에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방일하다면 마치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방일은 보통 '게으름'으로 표현되는데 언뜻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에서는 방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디가니까야(Dīgha Nikāya)〉에서는 '위축된(saṅkhitta) 마음' '혼침(昏沈, thīna) 등으로 방일을 표현한다. '위축된'은 마음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그라들어 말라버린 상태(萎縮)'이며 '혼침(昏沈)'은 마음이 마치 잠들어 어두워진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주체성, 자율성, 활동성 없는 상태 혹은 수동적인, 막연한, 마비에 빠진 상태가 바로 방일이다.

이에 반해 불방일은 마음이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상태, 혹은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마음이 막연한 시간의 흐름에 얹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삶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불방일 즉, '깨어있는' 삶을 강조한다. 깨어있음은 빨리어로 '사띠(sati)'로도 표현된다. 싸띠(sati)는 영어로 'mindfulness', 우리말로는 '마음챙김'으로 번역되며 '순간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싸띠는 불교의 대표적 명상법인 '마음챙김 명상'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의 태도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것, 현재 내가 생각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 지금의 순간에 내가 나의 순간들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또한 마음챙김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 진리)의 네 가지 영역을 통해 체계적인 수행법이 제시되어 있다.

마음챙김의 취지인 '깨어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챙김 수행의 '실천'을 통해 살아있는 삶, 불방일한 삶이 가능할 것이다.

이전의 연재에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maraṇassati)'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앙굿따라니까야〉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Maraṇasati-suttaṃ)〉에는 '만약 내가 한끼 음식을 먹는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면' '한 입의 음식을 씹어 삼키는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밖에 살지 못한다면' 등의 방식으로 죽음을 시간과 관련지어 죽음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제시 되어있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삶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한정되어있음을 깨닫게 하여 불방일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붓다고사(Buddhaghoṣa)가 저술한 〈청정도론(Visuddhimagga)〉에도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자는 항상 불방일(appamatto)하게 된다"고 말한다. 죽음을 마음챙김하며 죽음을 삶 속에서 사유하는 것은 고착화, 습관화, 수동화된 삶에 불방일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가 막연히 보내는 순간순간 시간들의 선명함을 드러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 서두에서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으면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고 불사(不死)에 이르게 되며 불사를 완성한다. 그대들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있는가?"란 붓다의 질문이 있다. 이러한 붓다의 질문에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함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넘어서기(不死) 위해서는, 죽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에서 말하는 '불사(不死)'가 가리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앞서 본 〈법구경〉의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불방일은 불사의 길' 이라는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다. 진정한 불사의 길은 방일한 상태에서 영원히 흘러가는 삶이 아닌,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생명 활동의 중지 혹은 삶의 종료를 의미하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죽음관은 죽음을 가까이 두면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무명에 가려진 삶, 막연히 반복되는 방일한 삶을 타파하고 순간순간 생생하게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깨어있는 마음
지금 순간의 주체활동 포함
죽음 넘어서려면 가까워야

불교에서 육신의 죽음보다 마음의 죽음을 더 중요시 한다면 죽음 극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불교에서 죽음은 1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며 태어남과 함께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고통이다. 따라서 죽음 극복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죽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죽음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지를 먼저 탐색해야 한다.

〈상윳따니까야〉에서는 죽음이 발생하는 12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명(無明, avijjā)이 있을 때 행(行, saṅkhāra)이 있고, 행이 있을 때 식(識, viññāṇa)이 있고, 식이 있을 때 명색(名色, nāma-rūpa)이 있고, 명색이 있을 때 육처(六處, saḷāyatana)가 있고, 육처가 있을 때 촉(觸, phassa)가 있고 촉이 있을 때, 수(受, vedanā)가 있고, 수가 있을 때 애(愛, taṇhā)가 있고, 애가 있을 때 취(取, upādāna)가 있고, 취가 있을 때 유(有, bhāva)가 있고, 유가 있을 때 생(生, jāti)이 있고, 생이 있을 때 늙고 죽음(老死, jarā-maraṇa)이 있다.

무명에서 시작해 죽음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관찰하는 것을 순관(順觀), 죽음이라는 최종 결과에서 무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관(逆觀)이라 하는데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관찰했던 방법은 역관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붓다의 출가 동기는 깨달음이 아니라, 죽음을 포함한 인간존재의 고(苦)였기 때문이다.

붓다처럼 십이연기를 역관(逆觀)으로 살펴보면 먼저, 늙고 죽음이 결과라면 전제 조건 즉, 원인은 '태어남'이다. 태어남이 없다면 죽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은 유(有, bhāva)인데, 이는 태어나기 위해 모태 내에 머물게 되는 존재를 뜻한다. 또한 유의 조건이 되는 것은 취(取, upādāna)이며 이는 '집착을 의미한다. 취의 조건이 되는 애(愛, taṇhā)이고 이는 갈애(渴愛)라고도 표현되는데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애의 조건이 되는 것은 수(受, vedanā)이다. 수는 감수작용(感受作用)으로 괴로움〈苦〉, 즐거움〈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不苦不樂〉의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수의 조건이 되는 것은 촉(觸, phassa)으로서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느낌은 우리의 감각기관〈根: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그에 대응되는 대상〈境〉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 어떤 즐거움, 괴로움 등의 감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상과 감각기관의 접촉이 전제되어야 한다.

촉의 조건은 육처(六處, saḷāyatana)인데 이는 인간의 여섯 가지〈眼耳鼻舌身意〉감각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육처의 조건은 명색(名色, nāma-rūpa)으로 색은 물질적 영역, 명은 정신적인(비물질적인 것: 언어, 관념, 기억 등) 영역을 포함한다. 명색은 물질과 비물질적 복합체(인식의 대상)를 뜻한다. 명색의 조건은 식(識, viññāṇa)으로 이는 의식(consciousness) 혹은 인지(cogniton)의 기능이 있다. 불교에서는 식, 명색, 육처, 촉의 네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감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根〉·대상〈境〉·인식작용〈識〉의 접촉〈三事和合〉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난다.

다음으로 식의 조건은 행(行, saṅkhāra)이다. 행은 '잠재적 형성력' '충동력(impulse)'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어떤 대상을 실재화, 구체화 하려는 잠재적 에너지라 말할 수 있다. 다시 행은 십이연기의 시작이자 마지막 단계인 무명에 근거해 작동한다. 무명(無明, avijjā)은 '밝지〈明〉 않음'으로 쉽게 말해 어리석음, 무지를 뜻하지만 이는 '근원적인 무지'를 의미한다. 무명은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에 무지함이며, 원초적인 근본 번뇌로서 모든 집착과 번뇌의 근원이며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전개 시켜 종국에는 태어남과 죽음을 발생시키는 태초의 원인이다.

불교에서는 생멸을 반복시키는 주체가 '마음'에 있다고 보며 죽음은 마음 영역의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무명'이 끝없는 생사의 반복을 생성해 낸다. 바로 이 무명의 타파를 통한 생의 차단, 그리고 생(태어남)의 차단을 통해 죽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무명을 파괴해 태어남과 죽음을 함께 제거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죽음 극복의 의미이며 바로 열반인 것이다.

열 두 가지의 연기적 요소들 각각은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얽혀 있다. 죽음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태어남이며, 태어남의 조건은 태어날 존재(有)가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태초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명이 최종 원인이다. 따라서 무명(어리석음)의 '명'(明)으로의 전환을 통해 무명이라는 원인이 제거되면 차례차례로 모든 인과의 연결고리가 소멸하기 시작하고 결국 죽음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인식작용, 감각기관과 대상, 욕망의 작동은 멈추고, 종국에는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없어지면 죽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해결은 무명의 타파를 통해 가능하다. 결국 불교의 죽음 극복의 문제는 죽지 않음(不死)이 아닌, 태어남의 없음(不生)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6780-9190	배철완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문화사업단	010-3048-4008	구광국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14 호 현대불교 21
2022년 11월 30일(음 11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근본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근본에다 맡기고 살라

여러분과 더불어 한마음 법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도반으로서 같이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지구가 버스라면 한 버스 안에 타고 그 버스가 어디로 갔다가 구르는지도 모르면서 네 종파 내 종파, 너희 종교 내 종교 찾을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오직 나로부터 나를 알고, 나를 앎으로써 내 가정이 있고 상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견고하게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잘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불제자로서 문을 찾아서 들고 문을 찾아서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강설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법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법설인 것을 아시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영원한 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사심 없이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며,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을 기필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또 불교가 아닙니다. 밥이 있기 이전에 나 자체를 깨닫는다면, 아니 깨닫기 이전에도 나를 믿고 나부터 바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식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심봉이 없이 맷돌 굴러가는 법도 없고 심봉이 없이 차가 구르는 법도 없고 심봉이 없이 이 모두 천체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핵이 없이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없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우린 천체물리학이면서 또는 과학이면서 공학이면서 지리학이면서 천문학이면서 의학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하나로 뭉쳐서 지금 한마음에서 물리가 터지기를 기원하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터지면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게 되면 열반을, 열반 아닌 열반을 알게 되고, 그 뒤에는 그대로 여여함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찰나생활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자신으로서 그대로 여여하게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알게 되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어서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의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든지 화엄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또는 반야경이든지 모든 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법설이 아니라 바로 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 신앙이 돼서는 안 되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 신앙으로서 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초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 거기는 의학이 종합되는 문제가 있겠죠. 정자 난자는 바로 엄마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에 근본적인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거기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계합이 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바로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의식과 그 핵이,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거기 계합이 돼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을 할 때에,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그걸 받아서 수십억 마리가 한데 모일 때에, 몸 받을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딱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진 그 자체가 왜 내 몸, 형성되는 그 몸에 올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 때에 인(因)으로 인해서 과(果)가 뭉쳐진 이 몸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속상한 거, 가난이 오는 거, 또 괴로움이 오는 거, 고독함이 오는 거, 허무감이 오는 거 모든 일체가, 또 병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부딪고 아픔을 겪는 이 고통이 바로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그 자체, 악업 선업이 뭉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것이 자꾸자꾸 형성돼서 자꾸 나오니, 마음이 나오니, 그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현재 의식으로 나오니 그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쉬어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핵과 에너지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그 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데 속지 말라 하신 뜻은, 지금 네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 공했느니라. 전체 일체가 다 공했으니 거기에, 마음이 나오는 거에 속지 말라. 개별적인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해서 포괄적인 하나로 돌아감이 바로 주인공이니라. 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공한 데다가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바로 놓고, 맡겨 놓고 '당신밖에 나를 형성시킬 수 없고, 당신밖에 나를 이익하게 이끌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내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이 말이 틀리걸랑 항의하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다 없어. 툭 터졌어. 툭 터졌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요, 삼재가 드는 거, 운명 팔자 이런 것도 다 없느니라. 공했어.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한 생각이 그렇게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그대로 여여하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며 바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내 몸뚱이 인으로 인해서 과가 생긴 그 악업 선업의 생각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이 돼서 나고 들 때에 삼십이상이 구족하고 삼십이응신이 바로 화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활이 그냥 참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묵선이자 행선이고 행선이자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에 백지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를 쓴 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 어디서 왔는

☞ 22면으로 계속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또 망상을 끊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은 그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었을 때에 손가락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의 그 어디에 참뜻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망상은 바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근원이고 거름입니다. 그런데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이러는데 끊기는 뭐를 끊습니까. 가서 물을 베어 보십시오, 물이 끊어지나. 지금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폭포수가 내리는데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샐 틈이 없는 그 도리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이 세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戒)가 문제가 아니라 일체가 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또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을 쓸 수 있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 작은 물건밖엔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고 모두가 둘이 아닐 때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고를 당합니까. 왜, 뭣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렇게 해 놨죠.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한테 바로 법설을 하시는 데, 금강경 법설을 하시는 데 해당됩니다.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빨리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죠.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 저 '불(佛)' 자 하나가 말하는 겁니다. 저 불 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핵입니다. 그 핵이 아니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다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오븐이라면 그 속에 넣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육근으로 인해서 육진 육식, 이것이 총 죄다 한데 합해서 '십팔, 심, 소연, 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요 말 조 말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그 마음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서, 팔만대장경이 옴치고 옴치고 돌고 돌아서 마음 '심' 자 하나입니다. 저 '불' 자 하나예요. '불교' 이러죠.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심입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敎)입니다. 그래서 불교니까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불교니 이걸 따지고 이렇게 소견에 의해서 요만한 그릇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어느 소굴에든지 들어가 봐야 바로 호랑일 잡을 수가 있고, 떡 그릇에도 엎드러져 보고 똥 그릇에도 엎드러져 봐야 '아하,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은 대(對)가 없는 게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아마.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느 개별적인 부처님,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넓고 넓은 광대무변한 마음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은 찰나에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지금 찰나에 삽니다.

그전에도 항상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한 철이라 하면,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앙당한 가지만 남죠. 그런 것이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이 없고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몸이 떨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둘이 아니다.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이 아닌 이상,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마음을 내놓는 분이 있고 진짜 마음을 못 내놓고 우물쭈물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그대로 찰나에 완성할 수 있는, 따져 보면 한 철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낙엽 떨어지듯. 그런데 하물며 나무도 한 철 낙엽이 져서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울지 않고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 추워도 봄이 오길 기다리는 인내는 물러서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고등 동물로서 조금만 추워도 그저 방황하고 온통 야단법석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당신이 그랬어! 뭐 어쨌어!" 애가 조금만 저거 해도 신경질, 자기가 신경질 나면 애한테 그냥 마구 신경질 내고 말입니다. 자기가 신경질 나면 부인한테로 가고 부인이 신경질 나면 또 애한테로 가고, 연방 이렇게 돌아가니 그게 무슨 짝입니까? 왜 속습니까? 화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한번 굴려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바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거는 한 뿌리다' 이럴 때에 저 전기 가설과 같아서 한 식구라 하면 벌써 가설이 된 한방 식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켜면, 식구들이 불을 못 켠다 할지라도, 밝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스위치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없다.' 하고 믿을 때에, 바로 진정코 믿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밝아지니 식구들이 밝게 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량수와 같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무량수와 같이 죄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죄가 붙을 자리도 없고 또 본래 죄가 없기 때문에 붙을 자리가 없다는 그 자체를 아시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가운데에 무엇이냐. 이렇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오면 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대치해 나갈 뿐이지, 무엇이 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이것을 해야만 이게 된다, 이게 업을 벗는다' 이러는데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부터라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도 붙을 자리가 없고 팔자도 운명도 다 붙을 자리가 없으니 그대로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머지않아서 아마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아실 것입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망상이라고 속지 마시고 거기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용광로와 같이 말입니다.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 쇠가 생산이 돼서 이름을 가지고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자동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용광로와 같이 아시고 거기에 놓는 작업만 하시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 하는 작업만 하실 때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이 그렇게 통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오신통은 재료라고. 여러분한테 재료지, 오신통 바로 그 자체도 벗어나야 그 재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신통 안에 매여 있다면 오신통을 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 그 자체에서도 벗어나야 그 재료로다가 오븐에 넣어서 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스런 일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을 때 씌워 주고 씌워 받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금 현시대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렇게 믿고 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 고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고집도 다 버리고 현재에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몸 안에 말입니다,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샛별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뚱이는 혹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은하계가 지금 저렇게 돌아가면서 별들이 총총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말입니다, 반짝거리면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바로 샛별같이 일어나는 그 한마음으로 뭉친 걸로 볼 때 그게 가정살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전기를 단 겁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는 움죽거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밝음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움죽거리는 거죠. 이 혹성은 그와 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움죽거리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무식한 사람입니다만 무식한 것이 따로 없습디다. 아무리 유식하고 상식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학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아는 권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서 가난해도, 부자여서 어떠한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거는 평등한 것입니다, 이 공부는. 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더 해야지.

그리고 법당의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이 거기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변소에 가면 변소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혹성이라면 바로 에너지가 있고 거기 핵이 있느니만큼 여러분이 시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에서는 종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대로 그 종이 없어도 안 되고 불교에서 말하듯 시자가 없어도 아니 되죠.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죠. 망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내는 게 없다면, 그 마음 내는 게 없다면 목석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끊으라는 겁니다. 왜 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찰나찰나 생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완성되는데.

또 우리가 핵이 있다 하면 그 움쭉도 안 하는 심봉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맷돌이 덜덜덜덜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맷돌뿐입니까? 기계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며 마음을 낼 수 없다면 목석이니 그건 바보고 멍청이죠. 목석이죠. 육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효죠, 또. 그러니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찰나의 이 생활, 이것이 바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완성된 이 생활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뭐가 갈 게 따로 있고 뭐가 올 게 따로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으며 가고 오는 시발점과 종점이 따로 없는데.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스님네들이 차비를 얻으러 왔을 때에 '허! 어디 갈 데가 저렇게 있어서 차비를 얻으러 오노, 응?' 하고요. 어디 갈 데가 그렇게 바쁩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는 거밖에는 없어요. 옮김도 없는 건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인내도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떼 놓을 때에 정말이지 이 두 발자국이, 한 발은 크고 한 발은 작고 이런 것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런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런 평등한 평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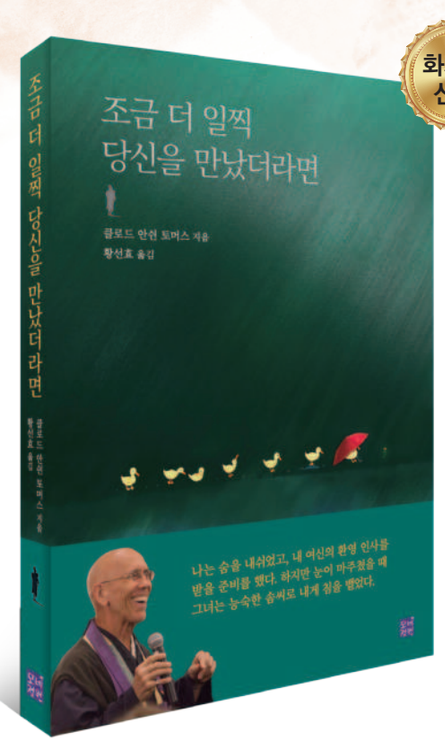
그러나 그거는 가는 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이 찰나의 생활을 사는 거 요것만 보고 사시지 말고, 우리가 늙었으면 젊어지고 젊었으면 늙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허무하게 생각 마시고 젊었다고 해서 기가 양양해서 그렇게 오만과 자만을 갖지 마시고, 그저 항상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대로 일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대로 자유요, 그대로 여여한 것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기가 해 보지도 않고 만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진짜 자기 주인공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진짜 믿는다면 애고가 없어요. 왜? 그 인과로 인해서 얽히고설킨 게 그냥 싹 가차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기 주인공을 믿는다면 애고가 없어요.
인과로 인해 얽히고설킨 게
그냥 싹 가차 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2월 10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현불논단

천당과 지옥은 우리 안에 있다



주경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오랜 전란에 심신이 지친 일본 무사
禪師를 찾아 문답 나누며 휴식 청해
"천당과 지옥 어디 있냐" 무사 질문
선사 왈 "당신 마음이 천당과 지옥"

불교는 '화합제일'을 근본 두고 중시
상대 대한 이해 · 배려, 화합의 바탕
자그마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집착해
이곳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지옥일 뿐

어떤 사람들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천당과 지옥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 그저 상식적인 대답이 나왔다.

"천당은 무척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고, 지옥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겠지."

"맞아, 그런데 사실은 천당과 지옥은 같은 곳 이래, 예를 들면 천당과 지옥의 식탁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꼭 같다는 거야. 음식차림도 수저와 제공되는 서비스도 동일한 것이지."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흔히 표현되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나 그림들을 보면 천당은 밝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묘사되고, 지옥은 어둡고 더럽고 불과 칼과 각종 고문도구로 극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그런데 어떻게 천당과 지옥이 동일하단 말인가.

유사한 소재로 일본 스님과 무사의 이야기도 전한다. 무사가 선사(禪師)를 찾아 전쟁과 전투로 지친 심신을 쉬고자 하였다. 선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 잔의 차를 대접하며 무사를 맞이하였다.

마음이 편안해진 무사가 물었다. "스님,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선사가 말했다. "지옥과 천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무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은 그대로 선사에게 전해졌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편안하고 근심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무사가 물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갑자기 무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더해서 그의 가족과 조상들에게 까지 좋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던 무사는 결국 인내심을 잃고 벌떡 일어나 선사를 향해 칼을 빼들고 말았다. 그 순간 선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무사에게 들려왔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지옥과 천당이 따로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지옥과 천당은 분명 별개로 존재할 것이다. 선과 악의 업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곳, 동일한 환경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지극한 선행을 행한 이들이 가는 천당과 극락이 있을 것이고 극단적인 악행을 행한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중간계인 인간 세상에는 지옥과 천당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에도 천당과 지옥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천당과 지옥의 식탁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저가 사람의 팔보다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은 각자 먹으려 하지만 이룰 수 없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당의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는 까닭에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화합제일' 을 근본으로 한다. 교단을 뜻하는 '승가(僧伽)' 라는 말도 '화합하는 대중'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대중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 최고의 가치인 열반이며 깨달음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공존공생이 화합의 바탕이다. 작은 차이와 차별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마음이 묶이는 순간 자신의 삶에는 서서히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차별과 차등에 집착해서 이곳을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지옥일 뿐이다.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면 지옥과 천당이 그곳에 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나쁜 행위인줄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잘못의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미 어디선가 날아온 불행의 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립니다. 왜 내가 그런 화살을 맞아야 하는지 원인도 생각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맞은 불행의 화살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살을 맞은 것에 대해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잘못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참회하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최선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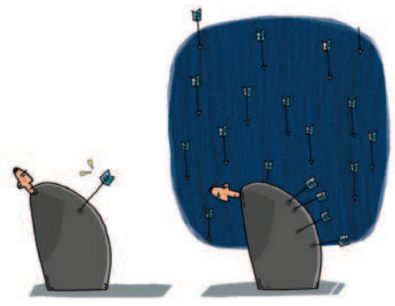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필 내가 왜 불행의 화살을 맞았을까'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과 불행으로 뭉쳐진 불행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발전도 없을뿐더러 또 다른 화살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모르고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초하여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관적이며, 자신의 삶을 낙오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낙관적인 자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낙관적이기에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 있나요? 불행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맡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법계도 왜곡 가톨릭, 잘못 인정하라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이하 법계도)는 통일신라 의상 스님이 방대한 〈화엄경〉의 요지를 210자로 응축하고 54각(角)이 있는 도인(圖印)을 합쳐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법계도가 최근 가톨릭에 의해 수난을 겪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서소문역사박물관에는 최근까지 법계도를 왜곡한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 가 전시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불교계는 지난 10월부터 철거와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톨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1월 18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대표단과 해인사 스님들이 서소문역사박물관과 가톨릭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톨릭의 문전박대와 사과 거부 의사였다.

특히,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신부는 "작가가 왜곡과 도용을 인정하지 않아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고, 배석한 변호사는 초상권 등 법적 문제를 거론했다. 종교인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톨릭 측은 법계도를 전통문화유산으로 뭉뚱그리며 공공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법계도는 불교의 성보이고 법구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법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불교의 성보인 법계도를 왜 가톨릭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공공재로, 전통 문양으로 만드는 것인가.

故법정 스님과 故김수환 추기경의 우의는 한국종교계의 귀감이었다. 다종교 사회에서 한국종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 바탕에는 상호 신뢰와 존경이 있었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성당을 찾은 스님들을 문전박대하고 법적 문제부터 운운하는 작금의 한국 가톨릭은 이웃종교에 대한 존경이 과연 있는가? 이를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제6대 군종특별교구에 바란다

제6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취임법회가 11월 29일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에서 열렸다. 군승 지원 감소와 홍제사 불사 원만 회향 등 산재한 과제 속에 제6대 군종특별교구에 거는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크다.

먼저 군승 수급 문제는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인식 전환과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독려가 필요하다. 출가자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흐름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파송이라는 국가와의 약속과 군포교의 막대한 혜택이 걸린 만큼 군종교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젊은 스님들이 일선 군법당에서 주지직을 소화하며 다양한 사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면 군승요원 충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승려 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종립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군종사관후보생 양성 전략을 가다듬는다면 장기적인 군승 수급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해에 군이 필요로 하는 군승의 절대적인 수는 출가자 수보다는 작다. 단기간 젊은 출가자들이 일선 사찰에 부족할지 모르더라도 일반 군대를 가지 않고 군승으로서 일선 군법당에서 포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국방부와의 원할한 조율을 통해 군승 임관과 전역까지의 이른바 군승 활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군포교는 지역포교와 달리 해당 권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웃종교와 포교전쟁을 하는 이른바 전법 포교의 최전선이다. 불교계와 조계종, 그리고 새롭게 진용을 가다듬는 군종특별교구의 군포교의 막중한 위치를 감안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ANGKOR

앙코르와트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앙코르와트 직항 · 5성급 호텔 제공

1,390,000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